



↑ 코스피 8801.49 (+13.11)	↓ 코스닥 1026.03 (-24.00)
↓ 금리 (국고채 3년) 3.773 (-0.017)	↑ 환율 (원·달러) 1519.00 (+14.70) (2일)



삼성전자 차세대 HBM5 공개 내년 2나노 본격 양산 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보고 있다. /뉴시스

## ‘與 압승’ 정권 안정·내란 심판 선택... 李 정부 힘 받는다

### 2026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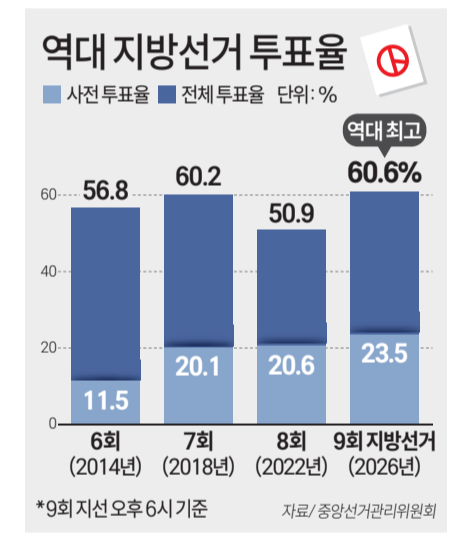
출구조사 민주 11곳, 국힘 1곳 우세 최종 투표율 60.6% 역대최대 기록 장동혁·정청래 지도부 새로운 도전

민심은 ‘정권 심판’ 대신 ‘정권 안정’과 내란 심판’을 선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기념자로 주목받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에 힘을 받는 것은 불

론, 향후 정국 주도권이 여당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관련기사 2~4면> 3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곳에서 우세를 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1곳에서만 우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6%로 집계돼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 정국 향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증명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

추진에 한층 더 강력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다진 여당은 입법부와 지방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며 정국 주도권을 공고히 하게 됐다. 반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마주한 야권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으나 참패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당 쇄신을 둘러싼 극심한 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압승을 거둔 여당 내부에서도 축

제 분위기만은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는 일부 흠집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건으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전략 공천된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의 경우 기표 막판까지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한 점, 경기 평택을에서 초경합열세로 출구조사가 발표된 점 역시 정 대표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젠슨 황, 오늘 입국... 9개 기업 릴레이 회동

내일 SK·LG·네이버 등 총수 만나 로봇·피지컬AI 등 협력 확대 전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정보 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6’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5일부터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회동에 나선다. 지난해 방한이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간부 회동’이었다면, 올해는 로봇·피지컬 인공지능(AI)으로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 전망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1일 대만에서 열린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행사에서 “서울이 원한다면 가까이 GTC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단순 부품 공급처가 아닌 AI 거점으로 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GTC는 엔비디아가 매년 여는 글로벌 AI 콘퍼런스로, 업계가 AI 산업의 방향을 가늠하는 무대로 꼽힌다. 특히 황 CEO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로보틱스를 핵심 분야로 지목했다. 그는 이

발 기업으로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한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방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한 15년 만의 방한이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그의 차근차근 회동이 화제를 모았다. 반면 이번 방한은 별도 외부 행사 없이 한국 파트너사만을 겨냥한 사업 목적 방문이다. 회동이 예정된 국내 기업만 9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의제도 넓어졌다. 지난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등 메모리·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로봇·피지컬 AI, 소버린 AI(국가 주도 AI 인프라)까지 의제가 전방위로 확대됐다. <6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 경제지표 개선에도 1500원대 환율 ‘뉴노멀’

한은, 환율 2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하반기 ‘금리 인상’ 원화안정 예고 원·달러 환율이 12거래일 연속 달러당 1500원을 넘기며 15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됐다. 수출액이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기고 증시도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두는 등 국내 경제지표가 뚜렷한 호조인 데도 원화는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원화값의 약세 요인인 ‘중동사태’가 종결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는 하반기에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달러당 1516.4원에 주간거래 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보다 12.1원 상승하면서, 4월 2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날 환율은 12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겼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기록한 11거래일 연속 기록보다 긴 기간이다.

◆수출·증시 호황에도 환율 ‘역주행’ 최근의 원·달러 환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한 수출액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도 늘어나는 만큼, 수출 증가는 환율 하락(원화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산업통상부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수출액은 87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53.2%나 급증했고,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800억달러를 넘겨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대급빈도체 호조에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국내 증시도 좀처럼 환율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로 이동하면 원화 수요가 늘지만, 최근 외국 투자자들이 차익실현과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오히려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 뽑자”는 말, 특정 진영 유리한 선거운동 아냐 /사진 뉴시스 ▲“나는 왜 투표용지를 덜 주냐”...투표소 곳곳 소란

▲“투표용지에 내 지지 후보 왜 없어” 선거사무원 때린 60대 ▲“대통령처럼 나도 기표 확인해줘” 투표소서 소란, 40대 수사

▲‘5명 사망’ 한화에어로 참가, 희생자 5명 장례 절차 논의 중 ▲정의연·윤미향 상대 ‘후원금 반환’ 왜 기각됐나...法 “기망 인정 어려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3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

# 지방권력 대거 교체... '5극3특 정책·6대 구조개혁' 탄력

與 승리 구도... 정부 국정동력 확보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개혁여건 마련 대전충남 통합 등 지방재편 가시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국민들은 집권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고, 기존 지방권력의 대거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이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등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권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16개 광역단체장 중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인천·울산·

경남·대전·세종·충남·충북·전남광주·제주 등 11곳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곳은 경북뿐이었다. 경합지는 대구·부산·전북·강원 등으로 집계됐다.

만약 출구조사 결과대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정부는 개혁 입법과 부동산 정책, 세제 등은 물론 금융·노동·연금·교육 정책 등에서 국정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행정·입법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차지한 셈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6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이번 선거의 구도는 이미 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호남·제주·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5극3특 등 지역균형개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울경이 대표적이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경남은 민주당 승리, 부산은 민주당이 접전우세다. 만일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이 지역을 '제2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더 빨리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집권 1년 만에 해양수산부·HMM 부산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 역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손발을 맞춰 주택 공급 전략을 짤 수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등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자치시도의 경우 이 대통령이 '예산 폭탄'을 약속한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주로 지방재정 및 세제 혜택 우대 정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등도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6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지선 이후 2028년 4월까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지지층과 이해관계자 반발에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여당이 다수

를 차지하고, 지방정부까지 다수를 석권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이종구조 개선이 골자인 노동개혁, 공공 부문 효율화를 추진하는 공공개혁,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 등이 6대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편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방송3사의 의뢰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4.1%포인트(p)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민주당 '전국 진격'... 국민의힘 '경북 수성' 개표 상황실 희비... 與 '박수' 野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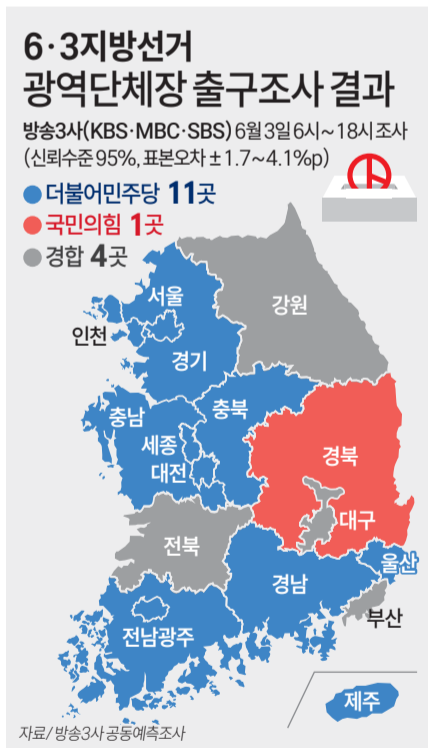
민주당, 수도권·충청 등 핵심지역 탈환 국민의힘, 사실상 참패... 지방권력 흔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의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이 11곳,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민주당이 압승했다. 나머지 4곳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3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60.6%으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2706만5412명이 투표하면서 오후 6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60.6%였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50.93%,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60.2%였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수도권은 민주당이 우세했다. 핵심 지역인 서울시장의 경우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46.0%로 9.2%포인트(p)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지사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60.4%,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34.1%로 추 후보가 크게 앞섰다. 인천시장도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53.7%, 현역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5.5%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앞서서 나온 울산시장은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52.8%,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43.2%로 나타났다.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가 김상욱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지사 역시 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54.3%,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45.7%로 나타났다. 울산·경남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 시·도지사였다.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 시·도지사였던 충청권은 전반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나타났다. 대전시장은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55.9%,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42.9%로 나타났다. 세종시장은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64.3%,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3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충북지사는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56.2%,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43.8%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특별자치시장은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78.6%,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12.8%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위성곤 민주당 후보는 62.2%, 문성

유 국민의힘 후보는 34.9%인 것으로 나왔다.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곳은 경북지사도,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는 69.7%, 오종기 민주당 후보는 30.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 지사에 3선 도전 중이다.

출구조사 결과 경합 지역은 강원·대구·부산·전북 등 총 4곳이다. 강원지사의 경우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51.3%, 현역 지사였던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48.7%로 우 후보가 경합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0.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8.3%로 전 후보가 접전 우세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접전지역으로 꼽혔던 대구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9.9%,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9.1%로 초접전인 상황이다. 무소속 돌풍이 일어난 전북지사의 경우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48.5%, 현역이었던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6.3%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14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만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31.1%,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0.6%,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30.3%으로 세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부산 북갑도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1.6%로 초경합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민식 후보는 15.8%로 나타났다.

/서예진 기자



metro

국민의힘 "국민의 선택 겸허히 수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희비가 교차했다. 다만 민주당은 '경합 4곳'이라는 결과에 잔잔한 박수 소리만 나왔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굳은 표정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 주요 인사들은 이날 출구조사 결과 발표 30분 전인 오후 5시 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모였다. 정 대표는 자리에 착석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종일관 침착하게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카운트다운을 거쳐 오후 6시 정각이 된 직후 발표된 결과에 다들 당혹스러운 듯한 분위기였다. 환호성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접전지에 서울, 부산, 전북 등이 포함되서다.

박수 소리가 나온 것은 서울시장 접전 우세 결과가 나오면서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이지만 승리 목표를 세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시장, 경남지사 등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예측에도 환호했다.

다만 김용남 민주당 후보보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경기 평택을을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측에는 다들 아쉬운 듯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긴장한 듯 양손을 매만졌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뉴스

상황실은 침묵과 함께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압승' 결과에 환호했던 4년 전 6·1 지방선거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인석 공동선대위원장,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 선대위 관계자 약 20명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봤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민주당 우세 11곳, 국민의힘 우세 1곳이라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결과 발표 직후 KB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인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40분 동안 착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다가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그는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봤나" 따로 입장 발표할 계획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예진 기자



metro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확인 후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鄭, 압승에도 전북·부산북갑 고전... 野, 참패에 비대위 수순

**與野 지도부 운명 갈림길**

與, 영남 제외 석권 압승 분위기 속 전북 무소속 선전에 공천 책임론 평택을·부산북갑도 리더십 변수 연임론·합당론 맞물려 전대 과열

野, 영남권 흔들리며 책임론 확산 장동혁 사퇴 후 비대위 전환 전망

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정 대표는 지선에서 이겼음에도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여부도 전당대회를 과열 양상으로 만들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그룹의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이 겹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재추진한다면 반청 진영에서는 '연임 포석'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엔 평택을 선거에서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합당 여부는 미지수의 영역으로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른 이유'로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구까지 내주고 경북만 지킬 경우, 16개 시·도지사 중 1곳만 지켰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구조사에서 전통적인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시장마저 접점으로 나오면서 정 대표의 지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윤어게인' 등 극우 노선을 견지하며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지 못하고 따로 지역을 돌았으며,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강원·충남 등 지역 외 다른 곳은 거의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관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선대위원장' 급으로 전국 곳곳을 방문했다. 이는 당 대표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

다만 영남권을 일부 지킨다 하더라도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대패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므로 정 대표가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또 지방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돌풍은 정 대표에게 정치적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정 대표 체제에서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역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정 대표가 이번 주 중으로 사퇴를 선언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다수의 관측이다. 다만 비대위 체제로 바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총선과 2026년 대선 당시에도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 '관리형'이나 '혁신형'이냐로 몇주간 논쟁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통상 직무대행을 맡은 원내대표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들은 후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임

기가 이달 중순에 끝나기에, 비대위원장 지명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박민지 프로 KLPGA 통산 20승 달성

## 위대한 기록 새로운 시작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죠”

멋진 스윙보다 화려한 트로피보다 짜릿한 역전승보다

이 순간 가장 빛나는 것은 함께해 준 모두에게 전하는 박민지 프로의 마음입니다

20승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기에 NH투자증권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 ‘명픽’ 정원오 뒤집기부터 전국 보수텃밭 흔든 권력 교체

輿, 輿 대항마 못찾다 극적 역전  
대구, 공천잡음에 주요 전선으로  
지선 투표율 4년 전비 20.2%p↑  
전북지사·부산 북갑도 화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1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한 민주당이 총선·대선 승리에 이어 4년 만에 지방권력도 가져오게 됐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는 서울·대구·전북과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구청장이 ‘명픽(이재명 픽)’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며 주목을 받았다.

결국 정원오 후보는 치열한 경선 끝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 현역 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3일 대구에서 출구조사 확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3일 대구에서 출구조사 확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 역시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하지만 ‘명픽’임에도 정원오 후보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는 선거라 ‘여당 프리미엄’의 혜택을 가장 못 받는 지역이라는 점,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출장 논란 등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려왔다. GTX 삼성 구간에 철근 누락 사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 안전 문제 선거 막바지에 불거지면서, 정 후보 측에서도 오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가했다.

결국 서울은 송파·광진 등 투표용지 부

족 사태까지 겹치며 개표 중임에도 국민의힘이 ‘개표 중단’을 주장하는 등 막바지까지 가장 뜨거운 선거구로 남았다.

대구시장 역시 이례적으로 격전지로 꼽혔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삼고초려 끝에 김부겸 후보를 대구 선거에 출격시키면서 분위기가 반전을 꾀했다. 거기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킷오프(공천 배제) 시키면서 잡음이 생겼다.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의

전선이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가 됐다는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가 김부겸 후보의 출마와 국민의힘 공천 잡음으로 주요 전선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은 빠르게 전열을 정비했다는 평가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 추 후보와 김 후보가 초접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쪽 캠프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격차가 워낙 적은 초접전인 상황이라 추경호 후보 캠프는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보수 정당도 텃밭으로 여겨졌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된 것을 보여준 셈이다.

거기다 대구는 통상적으로 지선 투표율이 낮았다. 대선과 같이 민주진보 진영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는 선거를 제외하고, 총선·지선의 경우 민주진보 성향 지지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다. 하지만 이번에 대구지역의 투표율은 63.4%로, 4년 전 지선에서 43.2%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20.2%포인트(p)가 올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구에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카

드는 ‘김부겸’이다. 김부겸 후보의 출마가 대구지역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전북지사가 이례적으로 격전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난하게 경선에서 1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제명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민주당 소속의 이원택 후보의 당선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을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인 하정우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면서 14곳의 재보선 지역 중 관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됐다. 특히 이곳은 여론조사가 30개 이상 돌아가면서, 막판에는 샘플이 잘 표집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출구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野 “개표 즉시 중단… 선거 연기 요구”

총 10여곳 투표소서 용지부족 사태  
野, 개표중단·서울시 재선거 주장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대국민 사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진상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의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며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진상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개표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소가)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보를 중앙선관위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연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선거 개표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에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열고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 시간 이상 투표를 못하게 되면 일상상 사유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독일 베를린 지선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사유로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며 “예산 체계상 유권자 숫자 플러스 알파만큼

투표지를 인쇄할 예산이 이미 반영돼있는데 그 예산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다른 곳에서 급하게 이송해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크다”며 “18시 이후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며 “더 이상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많은 국민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과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대기 중인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투표함을 이동시키려다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인 상황을 소개하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투표함 회수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시는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및 현장 브리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과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동별로는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 잠실7동, 문정2동, 청담동, 구의3동 등이다.

## 교육감 진보 11곳·보수 3곳 우세, 2곳 경합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 보수 성향 후보가 3곳에서 우세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합은 2곳이다.

3일 지상파 방송3사(KBS·MBC·SB S)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전남광주, 전북, 충남, 대전, 강원 등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대구, 경북, 충북 등 3곳에서 우세했다. 경합은 세종, 제주 등 2곳이다.

서울에서는 진보 정근식 후보가 39.0%로 21.2%의 보수 조전혁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경기에서는 진보 안민석 58.2%, 보수 임태희 41.8%로 나타났으며 인천은 진보 도성훈 37.1%, 보수 이대형 32.7%로 집계, 수도권에서는 모두 진보 진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에서도 모두 진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에서는 진보 김석준 49.6%, 보수 정승윤 34.0%, 울산에서

는 진보 조용식 44.2%, 보수 김주홍 32.0%, 경남에서는 진보 송영기 42.2%, 보수 권순기 38.7%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40.4%,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가 56.2%로 각각 1위로 예측됐다. 충남에서는 이병도 34.1%, 대전에서는 성공진 33.2%, 강원에서는 강삼영 43.8% 등 진보 후보가 모두 1위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가 1위로 예측된 곳은 대구 강은희 51.5%, 경북 임종식 45.0%, 충북 윤건영 45.7% 3곳이다.

세종에서는 진보 임전수 후보가 35.1%, 중도·보수 강미애 후보가 32.5%, 제주에서는 진보 고의숙 후보 45.1%, 보수 김광수 후보 42.0%로 경합 양상을 보였다.

이번 방송3사 공동 출구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이 방송3사 의뢰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4.1%포인트(p)다.

## 10여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 1면 ‘輿 압승’ 정권 안정…서 계속

당 주류의 공천 기조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견제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국민이 힘을 실어준 결과”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 속에서도 호남의 무소속 돌풍과 영남권 격전지의 고전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돼, 선거 이후 여야 모두 리더십 재편을

둘러싼 썬더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를 비롯한 1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했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오점을 남겼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대한민국은 내일도 맑음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분을 다하여  
개인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벤처모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청년·취약계층 재도약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공급 확대
- 연체 차주 재기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삼성전자, 차세대 HBM5 공개... 내년 2나노 양산 본격화

타이베이 '컴퓨텍스 2026'서 첫 선 메모리·파운드리 사업 시너지 커져 수주 확대·시장점유율 상승 전망

삼성전자가 내년 미국 테일러 공장의 2나노 양산을 앞두고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5를 공개하며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HBM5에 자체 2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등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간 시너지를 확대하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컴퓨텍스 2026' 전시장에서 HBM5의 실물 모형을 처음 선보였다. 회사는 HBM5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과 2나노 베이스다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HBM4E까지는 4나노 공정 베이스다이가 적용됐으나 HBM5부터는 한층 더 미세한 3나노 공정을 도입해 전력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메모리 경쟁력 강화와 함께 파운드리 기술력을 입증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BM4세대부터는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 고객 맞춤형 설계 대응 능력과 안정적인 대량 공급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간 시너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현재 2나노 게이트올라

온드(GAA) 공정을 앞세워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SAFE 포럼 2026'에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1호기에 올해부터 2나노 생산 장비를 반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업계 최고 성능의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하며 차세대 HBM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제품에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 로직다이가 적용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HBM4세대부터 자체 파운드리의 4나노 로직다이를 적용해 왔다. 이를 통해 초기 공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율과 양산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HBM5에 2나노 베이스다이를 적용하려는 전략 역시 이 같은 메모리·파운드리 시너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저전력 설계와 패키징 구조 최적화 기술을 집약해 HBM4E 12단의 성능을 한층 끌어올렸다. 전작 대비 에너지 효율은 16%, 열저항 특성은 14% 이상 개선됐다. 이를 통해 고부하 AI 연산 환경에서 HBM의 약점으로 꼽혀온 발열 문제를 완화하고 제품 신뢰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로 기대된다.

파운드리 사업부 분위기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테슬라에 이어 미국 빅테크들과 잇달아 협업 소식을 전하면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내년 미국 테일러 공장이 본격 가동하는 시점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7월에는 테슬라와 총 22조 7648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테슬라에 이어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추론용 AI 칩 '그록' 생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애플 차세대 아이폰용 이미지센서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단 공정 경쟁에서는 기술력 못지않게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중요하다"며 "2나노 양산 안정성이 확인되면 고객사 수주 확대와 시장 점유율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중동 전쟁·외국인 자금 이탈에 물가 '비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비 3.1% ↑ 외국인, 올해 국내 주식 90조 매도 원·달러 환율, 1550원 가능성 커져

물가 불안이 경제분야 최대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베 풀린 원·달러 환율이 급기야 1550원 선까지 바라보는 지경에 왔다. 외국인의 해외송금 행렬에 원화는 속수무책이다.

중동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과 갈자자 행보만 벌써 두세 달째다.

이런 탓에 국내 금리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나서야 할 때임을 지표들이 말해 준다. 그러나 반도체와 주식 시장의 기록적 호황의 이면에는 최근 몇 년치와 비교해 별반 다를 게 없는,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들이 있다.

매과적 통화정책이 한편으론 민생에 커다란 위협·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물가지급 요인 확장세에 대한 정책적 억제 노력은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개월 사이 최고인 3.1%(전년동월대비)를 기록했다. 이 같은 물가 불안은 석유류 가격 폭등과 1500원을



지난달 하순 이스라엘방위군의 공습을 받아 파괴된 레바논 남부 티레 시의 한 거주민 지역.

/AP·뉴스시스

넘나드는 환율 등에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국내 유가는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리터( )당 평균 2000원대에 진입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는 5월 1일부터 6월 3일(오후 3시 기준)까지 한 달 넘도록 2010원 위에서 판매됐다.

또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오전 2시 기준 15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야간거래 중에는 1520.3원을 찍었다. 1400원대 중반과 후반 사이에서 횡보하던 원·달러는 이제 1550원을 넘보고 있다.

주된 요인에 외국인 매도가 있다. 외국계 펀드 등은 올해 들어서만 국내 상장주식 90조 원어치 이상 순매도했다. 막대한 차익을 본국에 자국 화폐 등으로 바꿔 대거 송금하고 있다.

중동전 협상 경과가 여전히 미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게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는 외신보도까지 전해졌다. 두 인물이 물론 '오월동주'는 아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맞다면 동맹국으로서 추구하는 바가 같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중동사태에 원화 휘청... 환율 불안 지속

>> 1면 '경제지표 개선에도'서 계속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일 하루에만 코스피시장에서 6조555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순매도했다. 이는 2월 27일과 5월 7일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금액이다. 또한 외국인은 이날까지 1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가며 총 60조1685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계속된 순매도에도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의 36%보다 높은 40% 수준이어서 차익 실현에 따른 원화값 하락 가능성은

여전하다.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고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 금리인상·중동사태' 중전 변수

경제적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원·달러 환율 간의 간극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리인상' 카드를 고려했다. 수출 호조와 증시 상승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개선된 만큼, 기준금리를 올려 원화 가치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일

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들며, 나아가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리는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며 "향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환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가 원화값 하락의 주요 요인인 만큼, 중동사태가 종결되면 원·달러 환율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美 관세 개편... 韓기업 수출 부담 완화

관세합의국 대상 관세 15%로 낮춰 농업용 장비·공조설비도 관세 인하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상품에 적용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전격 개편하며 한국산 산업기계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기계차와 불도저 등 품목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계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mobile industrial equipment and machinery)의 경우,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한해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그 외의 국가는 기존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한국 등 기업들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아울러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agricultural equipment)와 공조설비(HVAC system) 등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15% 관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현지시간 기준 올해 6월 8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저율 관세(10%) 혜택 기준도 기존 '미국산 철강 95% 이상 사용'에서 '85% 이상'으로 완화돼 우리 부품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당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lates)과 철재 락은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에 새로 편입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엔비디아, 한국 파트너십 확대 '시동'

>> 1면 '젠슨 황, 오늘 입국'서 계속

증권가도 이번 방한의 무게를 주목한다. 앞서 KB증권은 황 CEO의 방한이 ▲ 피지컬 AI 생태계 확대 ▲ HBM 공급망 강화 ▲ AI 인프라 부품 공급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7개월 만의 재방문 자체가 엔비디아의 한국 의존도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회동 대상 기업도 대폭 늘었다. 황 CEO는 4일 입국한 뒤 5일 저녁 최태원 SK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만나며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세 총수의 참석은 사실상 확정됐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박정원 두산 그룹 회장도 합류를 검토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장소로는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 음식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8일 네이버 사옥 방문과 프로야구 시구 등도 일정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동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회성 행사보다 구체적인 수주와 협력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두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이벤트를 좋아하지만 추세는 이벤트가 아니라 주문서가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 회동 당시 주목받은 것도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고객사 공급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고 분석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e-Topia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kec.kea.kr

# SETIC 2026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2026. 6. 24(수) - 26(금)

호텔 농심 (부산시 동래구)

멈추지 않는 기술,  
확장되는 에너지의 물결



# 급등하는 증시따라 마통 대출 증가 남은 한도 55조 '잠재적 가계부채'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41조 전체 한도의 43%... 아직 57% 남아 증시 과열시 단기간 부채전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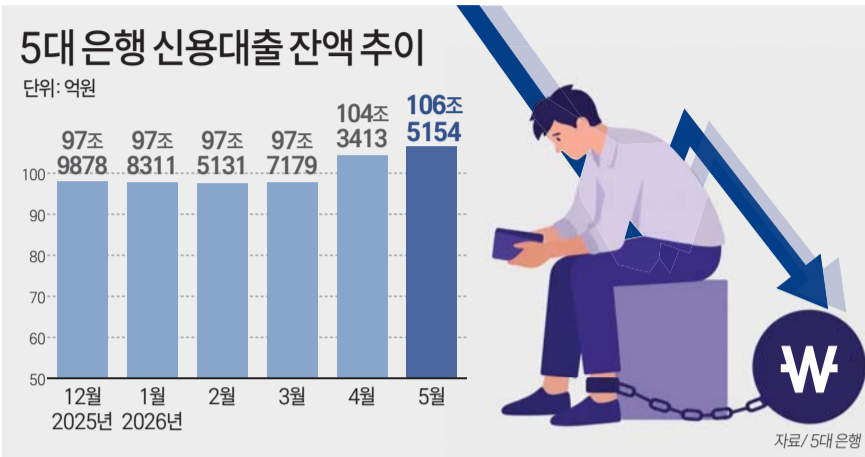
증시 활황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미사용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5조원. 한번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 증시 과열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41조20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한도(96조3387억원)의 42.8% 수준이다. 2023년 1분기 37.9%였던 한도 사용률은 지난해 41.1%로 40%를 넘어선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증시가 급등한 영향이 컸다.

코스피는 지난 2일 8801.49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5대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5154억원으로, 4월 말(104조



3413억원) 대비 2조6496억원 늘었다. 코스피가 3200선을 처음 돌파했던 2021년 4월(+6조8401억원)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문제는 현재 사용 중인 대출보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한도가 더 많다는 점이다. 마이너스통장의 전체 한도는 96조3387억원으로 실제 사용액 41조2041억원을 제외한 미사용 한도는 55조1346억원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 약정을 맺으면 별도의 대출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증시 과열이 이어질 경우 이 한도가 단기간에 실제 가계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차주에게 대출을 내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반영한다. 다만 가계부채 통계에는 실제 이용 잔

액만 집계된다. 55조원 규모의 미사용 한도가 증시 투자자금 등으로 빠르게 인출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를 단순한 대출 여력이 아닌 잠재 리스크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이미 승인된 신용공여라는 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용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증시 상승기에 투자 자금 수요가 몰릴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어 잔액뿐 아니라 한도 사용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KB금융, 차기회장 톱리스트 12명 확정

현 양종희 회장 연임 가능성도 관심 내달 3일 톱리스트 6명 확정 예정 10월 회추위 등 거쳐 11월 중 선임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현 양종희 회장의 임기가 아직 다섯 달이 남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와 검증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내·외부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의 톱리스트가 확정된 가운데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지난 2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한 달 이상 앞당겼다. 현 회장의 임기는 11월 20일까지며, 최종 회장 후보자는 오는 9월 11일 확정할 예정이다.

회추위에서는 회장 최종 후보 선정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지침'을 결의하고, 톱리스트 20명을 내·외부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압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승계절차 개시일로 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의 기간을 3개월로 늘려 후보자를 면밀히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다음달 3일 1차 톱리스트 6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외부 후보자에게도

불리함이 없도록 2개월 가량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8월 27일에는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2차 톱리스트를 3명으로 압축한다. 9월 11일에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하게 된다.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B금융그룹의 주주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관심사는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다. 앞서 윤종규 회장은 3연임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KB금융을 이끈 바 있다.

실적은 합격점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 4조6319억원에서 2024년 5조782억원으로 '5조 클럽'에 입성했다. 2025년 순이익은 5조 8430억원으로 성장세는 더 가팔라졌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9000억원에 달하며 연간 '6조 클럽'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최종 후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10월 2일 회추위와 이사회 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11월 중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빚투 열풍' 비은행 신용대출 787% 급증

지난달 온라인 P2P대출잔액 2.2조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사상 최대 신용거래용자 잔액 37조 역대 최대

시중은행에 이어 비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가 9000선 턱밑까지 치솟는 등 주식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46곳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지난달 대출 잔액은 2조1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약 1조1940억원)와 비교하면 83.3%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잔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약 3700억원에 육박했다. 전년 동기(약 415억원) 대비 787% 급증했다. 1년 사이 대출 잔액이 9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지난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소액 신용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1조3975억원으로, 전년(1조1674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역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코스피 랠리에 따른 '빚투' 수요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주식 시장 상승세에 더해 곧 코스피가 1만피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FOMO·소외에 대한 두려움) 심리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빚투 열풍은 이미 시중 은행권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100배를 넘어선 것. 실제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총 106조9909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말보다 2조6496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25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신

용거래용자 잔고가 37조68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가 빚투 확산세를 가리키고 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으로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 중에서 아직 갚지 않고 남아 있는 총금액을 뜻한다.

문제는 금리 인상 변수다. 최근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빚투족들의 금리 부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일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까지 불확실한 대외 변수로 조정될 경우, 급증했던 빚투족들의 충격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용대출 잔액 증가를 모두 빚투 수요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계자는 "대출 잔액 숫자는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다"며 "최근 온투업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저축은행이 기관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부영그룹, 병역명문가 전국 레저시설 할인

병무청과 우대혜택 제공 업무협약

부영그룹은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대상 레저시설 이용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과 홍소영 병무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 자랑

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직계비속 3세대(代)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는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무주더유산리조트·태백 오토리조트·제주부영호텔&리조트·제주부영CC·제주더클래식CC·순천부영CC)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계약 유지율 이미지.

## 보험사, 신계약 늘었지만 5년 유지율 '뚝'

금감원, 3년 단기 유지율 상승 5년 유지율 45.7%로 0.6%p ↓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장기 유지율은 여전히 절반을 밑돌고 있다. 단기 유지율은 개선됐지만 5년 유지율이 하락하면서, 보험사의 미래이익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계약 확대보다 계약 유지력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87.9%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2년 유지율은 73.8%로 4.6%p, 3년 유지율은 58.5%로 4.3%p 올랐다. 반면 5년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p 하락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가운데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이다. 유지율이 낮다는 것은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계약을 많이 확보하

더라도 계약이 오래 남지 않으면 판매비회수와 미래이익 인식에 부담이 생긴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 CSM 확대에 집중해왔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 계약에서 장래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실현 이익이다. 그러나 CSM은 계약 유지와 해지율 가정에 민감하다. 해지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장래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보험연구원도 올해 보험산업 전망에서 계약자 가정 변화에 따른 CSM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해지율 상승에 따라 평균 11%의 CSM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계약 CSM을 쌓는 것 못지않게 기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셈이다. 낮은 유지율은 소비자보호와 보험사 수익성 양쪽의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에 계약에서 해약한 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재가입 때는 나이와 건강상태 변화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같은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김주희 기자 gh471@

#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협력 확대...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젠슨 황, 자율주행 플랫폼 소개  
아이오닉 5 등 대표차량 제시  
퍼지컬 AI 생태계 구축 '맞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뮤직 센터에서 열린 GTC 기조연설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차량이 포함된 자동차 이미지 앞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엔비디아 유튜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GTC 기조연설에서 현대차그룹을 자율주행 협력 사례로 소개하며 양사의 협력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황 CEO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협력이 반도체를 넘어 모빌리티와 로봇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1일(현지시간)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GTC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 하이퍼리온'을 설명하며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제네시스 G70을 대표 차량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의 핵심 자율주행 파트너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아이오닉 5는 모셔널과 웨이모의 로보택시 차량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네시스는 연내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레벨4 구현에는 차량 제조 기술뿐 아니라 대규모 AI 학습 인프라, 가상 시뮬레이션,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완성차 개발과 로보택시 운영 경험은 갖췄지만, 대규모 데이터 학습 체계와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델 확보에 어

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 차세대 추론형 자율주행 모델 '알파마오 2 슈퍼'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차량 주변을 360도로 인식하고 차선 변경, 양보 등 복잡한 주행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웨이모와 테슬라 등 선두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웨이모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주당 50만 건 이상의 유료 로보택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FSD 기술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은 박민우 AVP(첨단차플랫폼) 부부장 겸 포터두트 대표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과거 엔비디아 부사장으로 자율주행 인지 및 물리 AI 사업을 총괄했던 인물로, 젠슨 황 CEO의 핵심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양사의 협력은 자율주행을 넘어 로봇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와 함께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GPU 5만 개를 활용해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AI 모델 학습과 검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엔비디아의 '옵니버스'와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해 로봇 개발과 시뮬레이션 환경도 구축한다.

업계 관계자는 "황 CEO가 방한기간 뉴스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의 관심은 GPU 판매 확대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 현장으로 이어지는 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CEO와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만남은 오는 5일 이뤄지는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오는 8일로 예상되는 주요 기업인 회동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삼성중, '부유식 데이터센터' 사업화 박차

英·그리스 등 글로벌 기업 협력 확대  
최성안 대표 "FDC 시장 선제적 진입"



삼성중공업이 개발하는 부유식데이터센터(FDC) 조감도.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대응해 부유식 데이터센터(Floating Data Center·FDC) 시장 선점에 나선다.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인증, 시장성 검증, AI 서버 운용 기술까지 글로벌 협력망을 구축하며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떠오른 FDC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은 1일부터 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선박 박람회 '포시도니아 2026'에 참가해 그리스 선주사 캐피탈, 영국 로이드선급과 FDC 3자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FDC 기술 개발과 건조를 맡고, 캐피탈은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를 담당한다. 로이드선급은 FDC 관련 규정과 인증 분야에서 협력한다.

삼성중공업은 로이드선급 산하 컨설팅

전문회사인 로이드 어드바이저리와도 별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북미 지역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시장성을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진행해 글로벌 FDC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정보통신 박람회 '이노베이트 APAC 2026'에서 미국 AI 서버 전문업체 수퍼마이크로와 공동개발 협력(J

DP)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FDC 프로젝트의 투자처 발굴, 시장 분석과 경제성 검증,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바다 위 데이터센터는 조선·해운업에 열려 있는 기회의 시장"이라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FDC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해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기아, '스포티지 HEV' HMGMA 생산

美 시장 SUV 생산·판매 확대



마티 캠프 여사와 브라이언 P.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탑승한 첫 번째 HMGMA 생산 기아 스포티지 HEV가 자율이동로봇에 실려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기아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폭탄에 대응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북미 공장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HEV)를 직접 생산한다. 기아는 그동안 스포티지 수출 모델을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했다.

기아 미국 법인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앨라배마에 위치한 HMGMA에서 스포티지 HEV 생산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생산을 본격화했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HMGMA 최초의 기아 모델이자 첫 번째 하이브리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에 이어 세 번째로 HMGMA에서 생산되는 차량이다. 이날 HMGMA에서 생산된 첫 번째 기아 스포티지 HEV는 자율이동로봇에 실려 무대로 등장, HMGMA의 고도화된 자동화 역량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생산라인업 합류로 HMGMA는 전기차·하이브리

드를 아우르는 전동화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또 기아는 미국 시장을 위한 SUV 생산 및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전제 라인업의 전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아는 기존 웨스트포인트 지역 기아 조지아 공장과 HMGMA의 생산 역량을 더해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5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글로벌 신용등급 상승... B2B 중심 체질개선 주효

S&P 'BBB+' 상향... "주력사업 성장"

LG전자가 생활가전과 전장, 구독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평가를 받았다. 프리미엄 가전 시장 지배력과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 안정적인 현금창출 능력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LG전자 신용등급을 기존 BBB, Positive(긍정적)에서 BBB+, Stable(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S&P는 "주력 사업의 견조한 성장으로 부채 감소 및 재무구조 개선이 전망됨에 따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Stable(안정적) 전망은 LG전자의 핵심 사업 경쟁력이 탄탄한 잉여현금흐름 창출과 부채 축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P는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구독 및 B2B 사업 확대를 통해 LG전자의 핵심 사업이 향후 2년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력사업인 생활가전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공고한 입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구독 사업이나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신시장 공략 역시 생활가전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1~2년간의 완만한 수익 창출을 전망했다.

전장 사업에 대해서는 텔레메틱스, 인포테인먼트 등 주요 제품군의 강력한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예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삼성전자, 'UL 솔루션즈' ECV 인증

친환경 소재 기반 자원순환 체계 강화

삼성전자가 폐자원을 다시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폐유리와 폐식용유에 이어 가전제품 포장재로 사용된 페스티로폼까지 재활용 소재로 활용 범위를 넓히며 친환경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신소재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내장재에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ECV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 후 남은 포장용 스티로폼을 수거해 선별 및 제조 공정을 거쳐 기존 소재와 동일한 품질의 플라스틱 혼합 신소재로 재탄생시켰다. 포장용 스티로폼은 오염도가 낮아 냄새와 유해물질이 적어 재활용 소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번 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스포크 AI 무공품보 갤러리' 에어컨과 '인피니트 AI 공기청정기'의 내장재에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UL 솔루션즈'로부터 재활용 소재 함유율 10%에 대한 ECV 인증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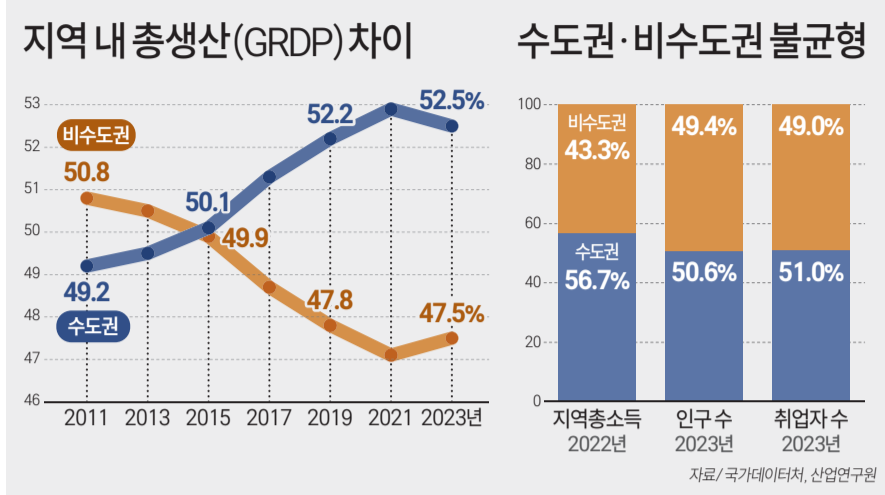
/차현정 기자

# 수도권 쏠림 지방경제... 새 지방정부, 中企 해법 시험대

중기중앙회·혁신벤처단체·소공聯  
지방정부 정책과제 잇단 제시

GRDP 수도권 한참 우위, 격차 확대  
청년들 수도권行, 인력난 계속 심화

산업현장, 투자·재정지원 확대 요구  
규제권한 지방이양, 지자체 혁신 주도  
소상공인 금융·디지털 지원도 과제



6·3 지방선거가 3일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꾸려질 예정임에 따라 중소벤처소상공인업체가 앞서 제시한 지방 정책 과제들이 향후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지역내 총생산(GRDP)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은 50.8%로 수도권(49.2%)을 앞섰다. 하지만 이 수치가 2015년부터 수도권 50.1%, 비수도권 49.9%로 역전되더니 2023년 현재 수도권(52.5%)과 비수도권(47.5%)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 디지털 기술기업의 76%(2022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사이 청년 6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했다. 매년 평균 5만600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충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연구개발(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경기 판교라는 이야기는 지방 기업들에게는 참 슬픈 현실이다. 제대로 된 R&D 인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고, 제조 현장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사면초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곧 출범할 지방정부들은 중소기업계 맞춤형 중기중앙회, 벤처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그리고 유일한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선을 앞두고 내놓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참고해 볼 만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 주도 성장’이란 비전 아래 오고 싶은 지방, 성장하는 지방, 살고 싶은 지방을 목표로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리소어링 기업의 지방 유입 촉진을 위한 인정 범위 확대,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강소기업 플랫폼을 통한 청년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고숙련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지방투자 보조금내 고용지원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선 지역 전통 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중소기업 R&D와 조달 연계체계 구축, 지역거점대·폴리텍대·지역기업간 연계·협업 강화, 지역 주력(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지원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기업 정착을 위해선 노후산업 입주업종 유연화, 청년층 지역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목표제 도입 및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혁신벤처협회도 지역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규제혁신기준 국가 목표제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 ▲지역 전략산업 실증·제도화·자금조달패스트트랙 구축 ▲지역 벤처기업 코스닥 상장 활성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벤처투자 빌리지 구축 ▲지역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공공조달시장 형성 ▲지역 중소·벤처기업 구성원의 정착지원

▲지역 특화형 벤처캐피털 조성 ▲지역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혁신정책본부장은 “기존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중앙정부가 관리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5극3특 추진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핵심 산업들이 생겨날 텐데 산업규제 허용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넘겨받아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기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지역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권역별 스타트업 혁신도시를 조성해 창업, 투자, 인재, 글로벌 진출 등의 기능을 집적시켜야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도 지방선거를 맞아 소상공인 관련 ‘4대 아젠다 22대 핵심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공통 현안 뿐만 아니라 지역신보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균형 성장 추진,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액 대출 상품 도입 등의 내용도 두루 포함돼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한화에어로, 반복 사고에 생산 안정성 비상

대전사업장 중단에 천무 등 차질 우려  
추진기관 공급 막히면 납품 연쇄 지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주요 무기체계 양산 일정과 방산 협력망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반복된 폭발 사고로 안전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과 수사가 길어질 경우 해외 주요 신뢰에도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매출 1조3189억원을 기록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의 4.94%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천무 다연장로켓과 천검 공대지유도탄 등에 탑재되는 추진 기관을 전담 생산하고 있다. 화약과 추진체를 취급하는 공정 특성상 재가동 전에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생산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내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천무와 천검 등 주요 무기체계는 다수의 협력업체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된 구조로 생산된다. 추진기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완성품 조립과 납품 일정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천무는 국내 전력화와 해외 수출이 동시에 진행 중인 대표 수출 무기체계여서 파급력이 더욱 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에스토니아와 약 5200억 원 규모의 천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전선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물량까지 얽힌 상황에서 생산 안

정성 문제는 납기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고가 향후 빠른 납기를 자랑하는 해외 수주전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산 수출 경쟁에서 납기 준수는 단순한 약속 이행을 넘어 국가 방산 브랜드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진체 등 고위험 공정에 정밀 센서와 자동제어 설비,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공정을 도입해 작업자의 직접 투입을 줄이고 안전성과 생산 안정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방산 생산라인에서는 이미 자동화 설비가 정밀 제조 공정을 수행하고 있어 확대 적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원관희 기자 wkh@

## 대동그룹, 조성우·유용규 부사장 선임

경영 효율화·조직체계 고도화  
로봇·모빌리티 등 사업 가속화

대동그룹이 AX 기반 경영 혁신과 미래 사업 고도화를 위해 임원들을 영입했다.

대동그룹은 딜로이트 코리아(Deloitte Korea)에서 딜로이트 프라이빗(DP) 리더 및 에퀴티 파트너(Equity Partner)를 역임한 조성우 부사장을 대동 경영기획부 문장으로, KT에서 미래사업 전략 수립 및 운영 총괄을 수행한 유용규 부사장을 대동모빌리티 사업총괄로 각각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대동은 올해 ▲AI·로보틱스 상품 혁신 ▲전사적 AX 추진 ▲수익 성장 가시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전사 AX를 통한 경영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농업 피지컬 AI기반의 농업 운영 플랫폼 전환, 그룹 로봇·모빌리티 사업



대동 조성우 부사장



대동모빌리티 유용규 부사장

가속화 차원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조 부사장은 “29년간의 경영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대동의 AX 혁신과 애자일(Agile)한 경영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조직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다양한 신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대동그룹의 로봇·모빌리티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코웨이, 초고화력 ‘W 인덕션 프로’ 선보

전 화구 3400W로 조리시간 단축  
3D 히팅으로 용기 측면까지 가열

코웨이가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어온 W 인덕션을 다양한 스마트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한 신제품 ‘W 인덕션 프로’를 출시했다.

3일 코웨이에 따르면 W 인덕션 프로는 전체 화구에 최대 3400W의 강력한 초고화력을 적용해 조리 시간을 줄이고, 혁신적인 ‘3D 히팅 가열 기술’을 통해 요리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우측 화구에 탑재된 이 기술은 바닥면은 물론 용기 측면 높이 4cm까지 열을 입체적으로 전달해 측면 온도까지 높인 것이 특징이다.

조리 용기의 크기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요리할 수 있도록 좌측에는 필요에 따라 두 화구를 하나로 연결해 사각그릴 등 넓은 용기도 경계 없이 쓸 수 있는 ‘플러스 존’을, 우측에는 용기 크기를 자동 감지해 가열 효율을 높이는 ‘듀얼링 기술’을 적용했다. 가열 중 용기를 다른 화구로 이동해도 기존 화력과 타이머가 그대로 연동되는 ‘스마트 오토 센싱’, 용기를 위아래로 움직여 화력을 제어하는 좌측 화구 전용 ‘드래그 파워 컨트롤’ 기능 등이 더해져 조리 동선과 사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외에도 코웨이 W 인덕션 프로는 이중 잠금, 상판 과열 제어 등 22종의 안전 장치를 탑재해 안심을 더했다.

/김승호 기자

## 청호나이스 자사몰서 ‘브랜드 위크’

렌탈료 최대 15개월 50% 할인

청호나이스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자사몰(청호나이스몰)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획전 ‘브랜드 위크’를 진행한다. 3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얼음정수기 등을 포함해 고객들이 시원한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청호나이스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렌탈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이번 브랜드위크에서는 올해 출시한 얼음정수기 ‘The M’을 비롯한 주요 제품 구매 고객에게 제품별 조건에 따라 최대 15개월 렌탈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 유진그룹 동양, 719억 자사주 소각 결정

발행주식 10.26% 해당, 주당가치 제고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보유중인 보통주 2443만9999주와 우선주 17만1980주 등 자사주 총 2461만1979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소각 규모는 장부금액 기준 약 719억원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26%에 해당한다.

3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동일한 기업 가치와 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가치가 높아져 주주 환원 효과가 예상된다. 발행 주식 총수 10.26% 감소를 통해 주당 지표가 약 11% 개선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동양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자본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2대 1 주식병합도 추진한다. 이는 발행 주식 수 정비와 주당 거래가격 정상화를 통해 저평가 인식을 완화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달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양은 장기화된 건설업황 부진 속에서도 스튜디오 유지니아, 이태원111, 금왕 에프원 등 핵심 개발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자회사 금융에프원은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해 연간 20억 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삼성SDS, 클라우드 매출 42.5% 급증... 체질개선 속도

(3년간)

지난해 2.6조... 전체 비중 19.2% 기업 AI 활용에 클라우드 수요 동반 최근 서비스형 GPU 시장 공략도

삼성SDS가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3년 새 40% 급성장하면서다.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는 외부 기업 고객 확보가 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은 최근 3년간 42.5% 급증했다. 2023년 1조8807억원에서 2024년 2조3235억원, 2025년에 2조6802억원으로 증가했다. 클라우드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4.2%에서 지난해 19.2%로 높아졌다.

이 같은 사업 호조는 기업 고객들의 AI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확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SDS는 2024년 기업용 생성형 AI 기반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 코파일럿'과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네브릭스' 등을 출시해 산업·금융·공공 시장에 뛰어 들었



김종필 삼성SDS 부사장이 지난달 29일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AX 세미나에서 AI 에이전트 업무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SDS

다. 이후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수요가 동반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서비스형 GPU(GPUaaS) 시

장은 공략하고 있다. 올해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B300'을 탑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업들의 생성형 AI 활용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구독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SDS는 GPU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약 4300억원을 들여 경북 구미의 옛 삼성전자 사업장 부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가동 예정 시기는 2029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글로벌 투자회사 KKR(콜버그 크레이비스로버츠)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약 1조22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삼성SDS가 보유하고 있던 6조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더해 글로벌 M&A와 AI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관심을 보였다. 증권과 유사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이에 약 1500억원의 자금을 들여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1%를 확보하고, 예약결제원의 토큰증권(STO) 플랫폼 사업을 수주했다. 2017년부터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벡스레저를 통해 쌓아온 금융 IT 인프라 노하우를 확장할 전망이다.

이같은 투자 확대 기조에서 삼성전자와 계열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는 강점으로 꼽힌다. 삼성SDS의 지난해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종속 회사로 전체의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사업이 내부 수요 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사업과 외부 고객 확보에 따라 기업가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투자 확대 기조에서 삼성전자와 계열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는 강점으로 꼽힌다. 삼성SDS의 지난해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종속 회사로 전체의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사업이 내부 수요 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사업과 외부 고객 확보에 따라 기업가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 '글로벌 AI 팩토리 동맹' 본격화

김유원 대표, 엔비디아 서밋 참석 초거대·피지컬·소버린 AI 확대 내일 이해진-젠슨 황 만남 '주목'

네이버클라우드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에 나선다. 단순한 그래픽처리장치 공급 협력을 넘어 인프라와 모델, 서비스, 피지컬 AI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서밋에 참석해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협력 방향을 공개했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개발에서 대규모 인프라 운영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 AI 인프라부터 피지컬 AI까지 협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2일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서밋'에서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

### 확대

양사는 초거대 AI 모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의 개방형 거대언어모델인 네모트론3 울트라 기술을 활용해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초거대 언어모델 최적화와 원천 기술 연구 역시

공동으로 추진한다.

피지컬 AI 분야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활용해 서울 전역을 가상 공간으로 구현한 '서울 월드 모델'을 공개했다. 서울 지역에서 수집한 120만장 규모의 파노라마 데이터를 학습시켜 실제 도로 환경과 공간 구조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이 향후 자율주행과 로보, 드론, 스마트시티 서비스 검증 환경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보유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이 결합하면서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소버린 AI 시장 정조준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는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구축에도 나선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 주권을 중

시하는 소버린 AI 구축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네이버의 클라우드와 AI 모델, 운영 역량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 산업이 모델 중심에서 추론 중심의 AI 팩토리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며 "AI 생태계 전 영역을 직접 운영해 온 네이버클라우드가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단순 공급 관계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를 함께 확장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향후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AI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역시 네이버를 핵심파트너로 평가했다. 라즈 미르푸리 엔비디아 글로벌 AI 클라우드-인프라 부문 부사장은 "AI 팩토리는 가속 컴퓨팅과 모델,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가 유기적

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고객들이 소버린 AI와 산업용 AI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이해진-젠슨 황 회동 주목

시장 관심은 양사 최고경영진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오는 5일 서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 CEO는 이어 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자율주행 로봇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직접 둘러볼 것으로 전해진다.

IT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이 모델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단순 기술 제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연합 전선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 U+, 7개월 만에 '심플 랩' 고객 아이디어 1만 건 돌파

고객과 함께 서비스 경험 만들어 실제 서비스에 약 10% 의견 반영

LG유플러스는 고객 참여형 서비스 '심플 랩'에 접수된 고객 아이디어가 7개월 만에 1만 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심플랩은 고객과 함께 서비스 경험을 만들어가는 양방향 참여형 플랫폼이다. 브랜드 철학 '심플리 유플러스'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개시했다. 매일 발표하는 이달의 주제 또는 자유 주제로 고객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고객 의견은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10%를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자녀 통신요금 관리 기능을 통합 앱 '유플러스 윈'에 도입한 것도 사례로 꼽힌다. 기존에는 자녀의 통신 요금을 조회하거나 휴대폰 분실 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고객 참여형 서비스 심플 랩(Simple Lab)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 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입 이후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서 선택 약정 신청까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는 즐겨찾기 기능 도입이다. 요금 조회나 회선 관리 등 기능이 앱 내 여러 메뉴에 분산돼 원하는 기능을 찾기가 불편함이 있었다. 이용 패턴이 각

각 달라 확실적인 구조로는 개인화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통합 앱 유플러스 윈에서 최대 5개까지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설정해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홈·모바일 통합 요금제와 로밍 서비스 등에서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다.

/조민선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중"

티빙,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접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회원 ID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가운데 회사는 유출 사실을 공지했으며,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3일 티빙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공지문을 올렸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 접수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규모와 책임 범위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는 이날 새벽 신원 미상의 해커가 티빙의 개인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DB)에 무단 접속해 관련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면서 발생했다. 티빙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비인가된 접근으로 인해 회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 인지 직후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이밖에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티빙의 월간활성이용자(MAU)가 500만명 인파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티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티빙과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조민선 기자

# 삼전·하이닉스가 끌어올린 9000피... 반도체 솔림은 '숙제'

반도체 3대 종목 시총 비중 55.09% 증시 호황이지만 체감 장세 괴리 커 HBM·AI 수요에 목표가도 줄상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의 국내 증시 솔림 현상을 표현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코스피가 9천피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5% 오른 8801.4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증시와 비교해도 훨씬 뜨거운 상승세다. 한국 증시의 파죽지세는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 등의 호재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업황 회복 효과가 컸다. 2일 삼성전자 주가는 36만500원까지 치솟았고, SK하이닉스도 236만원을 기록하는 등 시가총액 1·2위 기업이 쌍끌이로 시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투자업계에선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가파른 상승 폭만큼 비대해진 반도체 솔림에 대한 우려다. '두 반도체 공룡'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코스피는 사실상 단일 업종의 향방에 명운이 걸린 구조가 됐다.

### ◆지수는 '최고치+상승', 체감은 '하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등 반도체 3대 대형주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09%로 집계됐다. 2024년 말 25.0%에서 지난해 말 37.5%로 오른 데 이어 55%를 넘긴 것이다.

시가총액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일 장중 주가가 1.29%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5350억 달러

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조 5240억 달러의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시총 순위 10위에 올랐다. 기존 11위였던 삼성전자는 이번 상승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9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5610억 달러로,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2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순위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시총 1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총 순위 30위 안에 2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들였다.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두 종목이 삼성전자(30조2280억원)와 SK하이닉스(25조6470억원)였다. 이유 있는 매수세다. 산업통상부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였다.

수출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4% 증가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형주 편중 현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자금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27일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 18개의 최근 5거래일 거래규모는 48조5089억원에 달했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증시는 부진했다. 이날 종가 기준 상승 종목이 271개였던 반면 하락 종목은 635개에 달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거인의 그림자"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는 4100~4200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거품 vs 닷컴버블... "그때랑달라"

한국만의 얘기도 아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마이클 하트넷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달 29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하트넷은 "투기적 가격 움직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는 버블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이 버블 종료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승세는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주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로 주가는 88% 급등했고 AMD 역시 46%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5월 두 달 동안 25% 급등하며 최근 20년 사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랠리를 두고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는 믿음이 더 강하다. 1990년대 후반 실적과 괴리된 채 주가가 올랐던 닷컴 기업과 달리, 현재는 반도체를 사들이는 하이퍼 스케일러(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와 반도체 기업 모두 실제 이익을 낸다. 미국 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최근 금융 시장 투자환경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공포보다 탐욕이 더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 세계가 낙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한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은 충분하다"라고 진단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한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년 전 9.2배에서 현재 8.1배로 낮아졌다"며 "지수보다 기업이익의 상승폭이 더 커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익 전망 상황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다.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61만원, 400만원으로 올렸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5만원으로 제시했고, 골드만삭스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60만원대 목표주가를 내놨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씨티증권이 450만원, KB증권이 430만원, 미래에셋증권이 410만원을 제시했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를 단순 평균하면 삼성전자는 62만원, SK하이닉스는 423만원 수준이다. 현재 주가 대비 각각 70% 안팎, 80% 안팎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HBM 고객사들과의 3~5년 수준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수요 가시성 확보와 큰 폭의 가격 인상이 향후 두 회사의 실적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SK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378조원, 272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삼성전자 570조원, SK하이닉스 423조원으로 올려 잡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40대가 큰 손

전체 28.9%... 투자금액 1조225억 지난해 개인 주주수 50대 가장 많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의 투자자 가운데 연령별 기준 40대가 투자자 수나 총투자금 기준으로 최대 투자자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주식 시장에서는 50대와 60대가 '큰 손'이었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3일 한국투자·삼성·KB·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4곳의 4영업일(5월27일~6월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인버스 2종은 제외)의 투자자 및 투자금액을 합산한 결과, 투자자수는 7만850명, 투자금액은 총 3조275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4623만원에 이른다.

이 중 투자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만489명)로 전체 28.9%였다. 총 투자금액도 1조225억원으로 31.2%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는 50대와 60대의 비중이 컸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서는 40대가 '큰 손'에 오른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주주수는 50대(23.1%)가 가장 많았고, 40대(21.8%)는 두 번째였다. 소수주식수도 50대(34.4%)와 60대(26.6%)에 이어 40대는 18.6%에 그쳤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에서는 40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 상품의 투자자수는 50대(28.7%)도 40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30

대도 22.2%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0대는 11.5%였다.

20대도 6.5%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하 투자자수가 전체 약 60%에 육박해 젊은 층이 더 많았다.

20대 미만의 투자자도 일부 있었다.

투자금액은 40대에 이어 50대가 27.9%(9125억원)를 차지했다. 투자자수는 40대와 50대가 비슷했지만, 투자금액은 40대가 1000억원 이상 더 많았다. 30대도 약 20%(19.4%)를 보였고, 60대는 12.9%, 20대는 5.5%를 나타냈다. 투자금액도 40대 이하가 약 60%로 50대 이상보다 많았다.

다만,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70대 이상(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40대(5000만원)는 50대(4500만원)보다 많았다.

/허정윤 기자

## 젠슨 황 한마디에 급등... 로봇주 상한가

로봇 대형주, 평균 주가 상승률 155% 젠슨 황 CEO 향한 기대감도 영향

코스피가 9000선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투자자들이 로봇주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최근 증시에서 '로봇주' 주도 장세가 펼쳐지자 "로봇만 스쳐도 급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50조원 이상인 대형주 중 로봇산업으로 주목받는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LG전자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155%에 달했다.

종목별로 보면 지난 2일 종가를 기준으로 LG전자가 9만1400원에서 39만2500원까지 뛰며 329%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1일과 29일, 이달 1일 등 세 차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최근 물류에 쓰이는 '블로이 캐리봇'에 이어 홈로봇 '블로이드' 등으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범용 휴머노이드 추론 모델인 '아이작 그루트'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현대차는 144%, 현대모비스와 기아는 각각 105%, 40% 올랐다. 현대차와 기아는 로보틱스 자회사인 보스톤디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기대를 한몸에 받은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 핵심 부품 공급처로 부각되고 있다.

LG전자를 비롯한 로봇주들은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힌 젠슨 황 엔비디아 최

고경영자(CEO)의 언급과 오는 4일 저녁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그의 방한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하반기 로봇주가 부각될 글로벌 이벤트들이 주목된다.

현대차는 3분기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위한 훈련 사업 RMAC(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개시한다. 이는 로봇의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공정 검증, 작업 데이터 축적, 재학습을 있는 피지컬 AI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엔 테슬라의 옵티머스 3세대(V3) 공개가 예고돼 있다.

테슬라는 올 연말이면 연간 100만대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상용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양산에 성공하면 인건비 부담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로봇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 증시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하는 이벤트도 심의 절차에 따라 7~8월 사이로 예정돼 있다. 4족 로봇 등에 특화된 기업이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업계의 선두기업으로 꼽히는 유니트리라는 지난 1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정보(커황반·과학기술주 전용 거래 시장) IPO 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과열 우려다. 사업의 실제보다 '이름표'가 주가를 밀어 올리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파른 주가 상승은 과거 IT 버블이나 이차전지 투자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 '네트워크인프라 ETF' 3년 수익률 758%

KB운용, 국내 주식형 ETF 중 1위

KB자산운용은 'RISE 네트워크인프라 ETF'가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인공지능(AI) 투자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R

ISE 네트워크인프라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은 각각 81.69%, 145.77%, 313.85%, 758.11%, 923.30%에 달한다. 모든 구간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국내 주식형 ETF 중 1위(6/1 기준)다.

최근 글로벌 AI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 서버 구축에 필요한 메모리반도



체와 패키징 기판, 인쇄회로기판(PCB) 등 핵심 부품 공급망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허정윤 기자

# 한전, 사우디 열병합 사업 수주 17년간 총 매출 약 2.1조 전망

자푸라 1단계 성공적 수행 기반  
2단계 사업 경쟁 없이 단독수주

한전-아람코, 합작설립 SPC 경영  
국내기업 해외 동반수출 효과 기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다시 한번 때내며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재입증했다. 사우디 풍력, 태양광, 가스복합에 이은 잇따른 승전보다.

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와 자푸라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전력 및 증기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건설공사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 설비용량 331MW, 시간당 증기 생산량 약 465톤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를 오는 2029년 6월까지 건설한 뒤, 향후 17년간 전력과 증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매출 약 2.1조 원(약 14억 달러)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 2022년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해 올해 6월 말 준공을 앞둔 자푸라 1단계(317MW) 열병합 사업의 확장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전이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보여준 역량과 발주처인 아람코의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을 경쟁없이 단독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도 낙수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전과 아람코가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경영을 맡고, 발전소 건설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한다. 발전소 운영은 한전 등이 참

여한다. 이를 통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국내기업 해외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한전은 지난 2009년 라비 중유화력 사업(1200MW)을 시작으로, 2022년 자푸라 열병합 1단계, 2024년 사다위 태양광(2000MW), 루마1·나리아1 가스복합(3780MW), 2025년 다와드미 풍력(1500MW)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사우디 전력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2단계 수주를 계기로 한전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사우디 아람코의 후속 열병합 사업 추가 수주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가스복합·신재생에너지·전력망·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동 에너지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들과 팀코리아 구성을 통해 동반 진출을 확대하며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부산항만공사, 中 닝보서 '불안정 공급망 대응' 공유

닝보 해상실크로드 항만협력포럼  
송상근 사장, 지정학적 위기 등 언급  
선박 입출항 최적화 협력 가능성 모색

부산항만공사(BPA)가 중국 저장성 항구도시 닝보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공유하고 세계 주요 항만과의 협력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송상근 BPA 사장은 지난달 26일 중국 닝보 시에서 열린 '제10회 닝보 해상실크로드 항만협력포럼' 고위급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송 사장은 세계 주요 항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부산항의 대응전략 및 주요 추진성과 등을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위기 확대, 전 세계 해상운송망 재편,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항만의 역할이 단순한 화물처리 거점을 넘어 국제교역과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관련해서는, 세계 주요 환적 거점항만으로서 국제 연결망과 안정적인 항만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 흐름을 연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 속에서도 공급망의 실질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항만 구축, 디지털 전환, 해외물류센터 운영 및 항만 간 협력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공급망 위기는 어느 한 국가나 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과제"라며 "부산항은 주요 전 세계 항만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욱 탄력적이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항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또 닝보저우산항만그룹의 주 마오 사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 항만 간 우호 협력과 상호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닝보저우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3위, 톤(t) 기준 처리량 세계 1위 항만으로,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 해상물류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송상근(왼쪽)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중국 닝보에서 주 마오 닝보저우산항만그룹 사장과 양자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PA

있다. 양측은 면담에서 동북아 물류망 강화, 항만운영 효율화, 친환경·탄소중립 대응, 스마트항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선박 입출항 최적화(PCO) 관련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닝보 해상실크로드 항만협력포럼은 국제 항만·해운 전문 포럼이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1000여 개 해운·항만기업,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항만협력 행사다.

공사는 중국 현지 진출한 해운·물류기업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중국 해운·항만시장 동향, 현지 물류운영 과정에서의 애로 등이 공유됐다.

송 사장은 "현지 기업의 목소리는 부산항 운영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며 "업계 의견을 부산항 운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닝보 포럼을 계기로 중국 주요 항만 및 현지 해운·물류 업계와의 협력망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환경산업기술원, 비전위 출범... 혁신·미래지향적 개선 추진

오는 11월까지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비전위원회'를 발족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부문에서의 선도기관 도약 목표를 내걸었다. 이 협의체는 경영 및 사업 전반에서 혁신·미래지향적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비전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운영된다. 환경산업기술원 경영기획처장을 간사로 두고, 경영과 사업의 2개 분과로 나눠 과제를 발굴·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응 경영비전 분과에서는 미래성장형 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 및 조직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문화 확산 활동을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 인사관리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대응 사업비전 분과는 환경기술개발(R&D)·산업육성·녹색전환·환경보건 등 기관의 핵심 기능별 신사업 발굴을 맡는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기능과 무관한 사업 구조조정을 과감히 점검하고, 사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I) 도입을 확산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갈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족한 비전위원회.

이는 향후 10년간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10 도약, 빅스텝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다. 향후 환경분야의 선도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사적 의지를 담았다. 발족식은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광우 환경산업기술원장과 공공기관 운영 전문가인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이창흠 가톨릭대 교수와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영수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호 비전알앤이 부회장 등 학계·산업·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이 위원회는 내부 비상임이사·노동이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진이 실무

에 직접 동참하고 안전을 상시 공유·논의한다. 노사가 함께 이른바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긴밀한 소통·참여경영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임직원 설문조사, 경영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을 거친다. 최종 성과물은 오는 11월 비전 선포식에서 공유된다.

남광우 원장은 "투명한 경영과 긴밀한 소통으로 조직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노동조합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조직문화 쇠퇴를 이뤄 내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자동화부두 청사진 제시

글로벌 핵심선사 관계자에 이점 알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글로벌 핵심선사 관계자들과 만나, 공사가 추진 중인 자동화부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 갖춘 항만 인프라·지리적 이점 등을 알렸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이들과의 자리는 신규항로 개설을 비롯해 항만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선사 운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항만 인프라를 소개하는 현장 마케팅도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해운·물류의 최전선에서 핵심선사의 국내 운항을 총괄하는 소장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여수광양항 소개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전략 안내 ▲자동화부두 소개 ▲선사들의 애로사항 수렴 ▲질

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여수광양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올인원 현장 마케팅'으로 차별화해 소장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관, 항만 안내선 승선 등을 통해 여수광양항의 지리적 이점과 부두 운영 현황에 대한 항만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항만 안전과 관제의 핵심 기지인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현장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건 선정

농식품부, TF 회의서 1차 과제 확정

정부가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전담반)' 회의를 열고 1차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4월 TF 발족 이후 실무 워크숍과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총 104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시급성과 과급효과 등을 고려해 30건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도 사각지대 악용 편법행위 5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6건, 부당이익 우려 사례 3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이용을 적발하

고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거부지 불법 점용 등도 집중 점검한다. 농협에 대해서는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와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제고 등 개혁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현장과 괴리된 제도도 손질한다. 청년농이 부모 소유 농지·시설을 임차해도 독립 영농으로 인정해 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한다. 배달앱과 포장재에 중복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규제는 완화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제도화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비료 과다사용 관행 개선과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복지용 쌀은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으로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세종=김연세 기자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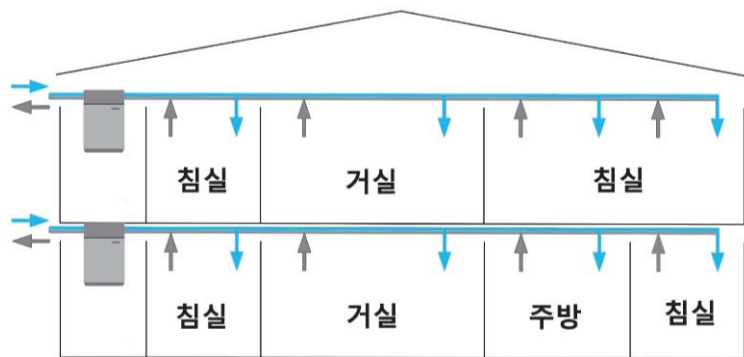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 깨끗한 실외공기 + 산소 공급  
← 오염된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배출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http://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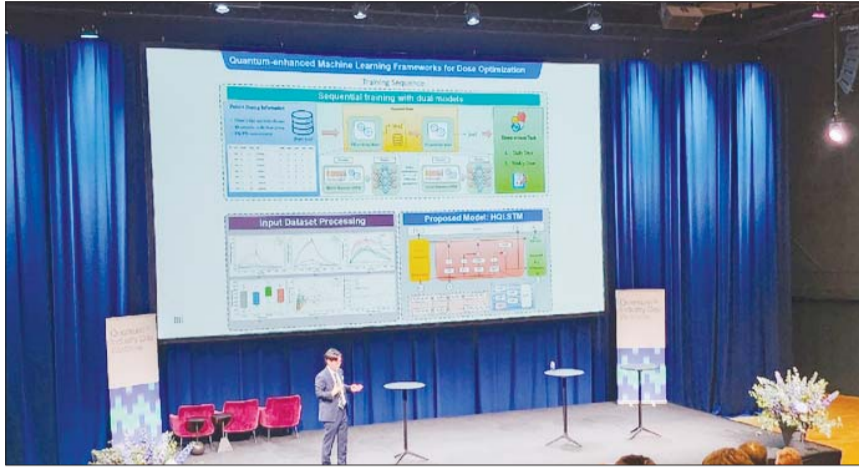
# 부산대, 유럽서 양자·AI 기술 우수성 알려... 국제협력 확대

Team PNU, 경진대회 최고 성적 유럽 연구진과 공동연구 기회 얻어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와 협력 성과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황원주 교수 연구팀 'Team PNU'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 양자기술 경진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며 부산의 연구 역량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 부산시가 구축해 온 국제 협력 체계가 지역 연구진의 해외 진출과 연구 성과 창출로 연결되면서 향후 글로벌 공동 연구 확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황원주 교수 연구팀인 'Team PNU'가 지난 5월 2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글로벌 퀀텀 이노베이션 챌린지(Quantum Innovation Challenge)'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글로벌 제약기업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등이 주관한 국제 경진대회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양자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대 연구팀의 글로벌 퀀텀 이노베이션 챌린지 발표 모습. /부산시

마련됐다.

Team PNU는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서 환자별 최적 약물 투여량을 예측하는 양자 AI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다. 연구팀은 본선 심사를 거쳐 세계 상위 5개 팀에 이름을 올렸고 유럽 최대 규모 양자 분야 학술행사인 '유럽 양자 컨퍼런스(EQTC 2025)'에 초청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미국 UCLA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 세계 주요 대학 연구진과 경쟁한 끝에 연구 완성도와 실제 활용 가

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성과로 Team PNU는 글로벌 제약기업 및 유럽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기회를 확보했으며 슈퍼컴퓨터 인프라 사용권도 얻게 됐다.

이번 결과는 부산시가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Innovation Centre Denmark)와 추진해 온 국제 협력의 성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덴마크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프로그램(GINP)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분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퀀텀코리아

행사에서 덴마크 외교부 퀀텀 사절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교류 범위를 양자 기술 분야로 넓혔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경진대회 개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지역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지역 연구진이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점도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와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가 함께 구축한 글로벌 협력 기반 위에서 지역 연구진이 세계 최고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 기관과의 국제 공동 연구와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양자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연구자들의 글로벌 연구 참여 기회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구미시

####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인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총 11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최초 선정 시 55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와 주민등록 유지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55만원을 지원한다. /구미(경북)=김진근 기자

### 여수시

#### 주요 섬 솜품 영상 공모전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지역 섬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40초로 즐기는 여수' 솜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화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참가자는 여수 주요 섬 12곳인 금오도, 개도, 안도, 연도, 낭도, 사도, 하화도, 여지도, 조발도, 거문도, 초도, 손죽도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40초 이내의 세로형 솜품 콘텐츠를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여수(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 광안리 어방축제 할인행사

부산 수영구가 제24회 광안리 어방축제 기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수영구는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광안리 어방축제와 연계해 지역 내 139개 업소가 참여하는 가격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할인 행사에는 골목형 상점가와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일반업소 133개소와 민락회촌 6개소가 참여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영천시

#### 내달까지 관광 굿즈 공모전

영천시는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담은 관광 상품 발굴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2026 관광 굿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굿즈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정체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용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대상은 대구와 경북에 소재한 개인 또는 사업자다. 공모 기간 내 완성된 제품과 관련 서류를 영천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 전남도, 출산율 1.30명 '전국 1위'

데이터처 '3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 출생아수 2569명... 전년비 341명↑ 출생기본소득·난임부부 지원 확대

전라남도가 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를 동시에 이끌며 저출산 대응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인구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3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는 2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명 증가했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소득을 통해 도내 출생 아동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다인 7개 공공산후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소득 기준 없이 제공한다.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했다. 가임력 검사와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보존사업과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전남아이톡을 운영해 임신·출산·양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문경새재 누적 방문객 153명 돌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축제 영화

문경새재도립공원이 영화 흥행과 축제 효과에 힘입어 관광객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경시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로 이어 지난 5월 열린 '2026 문경새재사발축제'가 성황을 이루면서 5월 말 기준 문경새재 누적 방문객이 15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만여 명보다 29.3% 증가한 수치다. 문경새재는 지난 4월 말 이미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영화 주요 촬영지인 오픈세트장 '뫼천골'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문경새재사발축제 기간에도 28만여 명이 방문하



2026 문경새재사발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축제장을 둘러보고 있다.

며 관광 열기를 이어갔다.

문경시는 촬영지 시설 정비와 포토존 조성, 주차장 무료 개방, 전동차 운영 등 관광객 편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영화와 축제가 관광객 증가를 이끌며 5월 말 153만명 돌파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체험형 관광 서비스를 강화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참여 사업장 모집

정규고용 시 최대 24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20기 드림터(사업장)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 사업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며 실무 능력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그린산업단지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참여 사업장은 단순 업무 지원이 아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관련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드림터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현장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 기간 참여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채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청년을 1년 이상 정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240만원의 채용 연계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직무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지역 인재를 사전에 발굴·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참여 사업장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지역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 경북도, 'K-과학자' 사업 성과 본격화

공모 선정·과학강연 확대

경북도가 추진하는 'K-과학자' 사업이 공모사업 지원과 정책 지원, 과학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원자력, 의료,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 석학 9명을 K-과학자로 위촉하고 기업 기술지원과 정책 지원, 국책사업 유치, 인재 양성 등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K-과학자기도와드립니다' 사업을 통해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대학, 기업과의 과학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칠곡군 어린이 과학체

험공간 공모사업 선정이 꼽힌다. 정용환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칠곡군은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

과학강연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무원 특강과 청소년 교육 등 20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4월 포항 동성고에서 열린 '뇌수술의 역사와 발전' 강연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인공지능, 첨단소재, 생명과학, 농업, 산림 등 분야의 K-과학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주거시설과 공동활용시설을 갖춘 K-과학자마을도 준공될 예정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홈플러스, M&A 성과 기대이하... 회생계획안 인가 불투명

익스프레스 매각 1206억 그쳐  
DIP 대출 등 자금조달 난항  
업계 “청산 가능성 배제 못 해”



홈플러스 매장 전경. /뉴시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익스프레스 매각과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등 핵심 회생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점포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서울회생법원이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DIP 대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3일로 시한을 연장했지만, 회생의 핵심으로 꼽혔던 절차들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경영 정상화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매각됐으나 매각 대금은 1206억원에 그쳐 과거 시장에서 거론되던 1조원대 가치에 크게 못 미쳤다. 3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DIP 대출 역시 메리츠금융그룹과의 협상이 장기화되며 현재까지 1000억원 집행에 그친 상태다.

메리츠 측은 추가 대출의 선행 조건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행보

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상품 공급 정상화와 영업 회복을 위해서는 메리츠의 추가 대출 실행과 김 회장의 이행보증 수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홈플러스는 자금난 여파로 전체 104개 점포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임금 체불과 상품 공급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본사와 온라인몰,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착수하며 돌과구 마련에 나섰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국내 유통기업은 물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도 투자안내서(티지)를 배포했으며, 시장

에서는 매각가를 2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인수 기업이 단숨에 대형마트 업계 3위 사업자로 올라설 수 있는 점과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유력 후보군이 인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역시 국내 오프라인 유통 운영 경험이 부족해 실제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던 익스프레스 사업부가 이미 분리 매각됐고 의무휴업 규제 등 대형마트 연합 부담도 여전하다.

회생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장에서는 구조조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가 채권단에 설명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37개 휴업 점포 폐점과 10여개 점포 추가 휴업 검토 방안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점포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인력 이탈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4월에만 약 3000명의 직원이 퇴직했으며, 직영 직원은 수백 명 안팎으로 감소했다. 일부 직원들은 휴업 점포 운영 중단에 따라 월 140만원 수준의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까지 본체 매각이나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작·간접 고용 인원만 10만명에 달해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정부와 여당에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하이트진로

### ‘참이슬 후레쉬’ 리뉴얼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사진)’의 주질 리뉴얼을 단행하고 6월 중순부터 전국 유통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2024년 브랜드 전면 개편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변화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저도주 선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사는 지속적인 소비자 조사와 연구·테스트를 거쳐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도에서 15.7도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부드럽고 깔끔한 음용감을 구현하는 동시에 소주 특유의 맛과 균형감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호도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시장 흐름을 반영해 이번 리뉴얼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과 시장 변화를 적극 반영해 참이슬만의 깨끗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계란 한 판 7400원 돌파... 먹거리 물가 비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후폭풍  
3개월새 9% ↑... ‘에그플레이션’ 우려



서울 시내 한 마트에 계란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한 판 가격이 3개월 만에 9% 가까이 치솟으며 이른바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계란값 폭등은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외식 및 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특란 30구의 소매 평균 가격은 741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1일(6828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약 8.6%가 뛰어오른 수치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의 평균 가격은 6982원으로 7000원 선을 밑돌았으나, 충남 지역의 경우 8005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8000원 선을 돌파했다.

이같은 계란값 폭등의 주원인은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다. 당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계를 대거 살처분하면서 전반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가시화됐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약 4692만 개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공급난은 계란을 필수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 외식 업계에 즉각적인 원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일반 가정 역시 식탁의 단골 메뉴인 계란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실제 먹거리와 외식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통계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6개월 만이다. 이 중 계란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10.2% 폭등했으며, 외식 물가 역시 2.6% 상승해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

문제는 계란뿐만 아니라 닭고기(계육) 수급 역시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AI 여파

로 종계(씨닭)와 육계의 살처분이 이어지면서 치킨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오븐구이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은 지난 1일부터 일부 메뉴의 중량을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닭다리살 순살 메뉴 기준 조리 전 중량을 기존 800g에서 700g으로 조정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AI 영향으로 대량 살처분이 이어지면서 닭고기 생산 기반 전반의 공급 부담이 심화된 상황”이라며 “원료육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심 끝에 중량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전체 원재료 중 계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기조에 부차제 비용까지 전방위로 오르고 있어 기업이 느끼는 비용 압박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롯데마트

### ‘무가당 치킨 훈제’ 출시

롯데마트가 여름철 고단백 간편식 수요를 겨냥해 무가당 축산 상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당류와 대체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무가당 치킨 훈제 슬라이스(400g)’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1+1 행사를 진행하며 판매가는 1만990원이다.

신제품은 100g당 단백질 16g, 열량 140kcal 수준으로 설계됐다. 제조 과정에서 당류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닭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은은한 훈연향과 담백한 풍미를 강조해 간편한 단백질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서현 기자

## 엔제리너스

### 빙수 등 시즌메뉴 선포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을 활용한 신제품 음료 2종과 ‘듬뿍 빙수’ 3종 등 총 5종의 시즌 한정 메뉴를 오는 6월 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음료 라인업은 ‘진짜 수박을 마시다’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생수박 듬뿍 주스’는 잘 익은 제철 생수박을 얼음과 함께 갈아 수박 본연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살렸으며, 시럽 양을 조절해 개인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생수박 화채 스파클링’은 생수박에 베리와 코코넛 젤리, 탄산을 더해 여름철 대표 디저트인 화채를 음료로 재해석했다.

함께 출시되는 ‘듬뿍 빙수’ 3종은 기존 인기 메뉴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풍성한 토핑과 부드러운 우유 얼음을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 창고43, 조서형 셰프 파트너십 계약

여름철 보양 콘셉트 메뉴 출시 예정

다이너스그룹의 프리미엄 한우다 이닝 브랜드 창고43은 조서형 셰프와 연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메뉴 개발, 콘텐츠 협업,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조서형 셰프는 인기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장사천재 조사장’으로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다. 창고43은 조서형 셰프 특유의 감각적인 한식 해석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접목해 고객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만족도 높은

한우다이너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시즌별 협업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고객 참여형 콘텐츠와 오프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여름철 보양 콘셉트의 시즌 메뉴를 이달 중 출시한다. ‘재료가 가장 맛있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요리’를 지향하는 조서형 셰프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철 식재료와 한우의 조화를 살린 메뉴를 선보여 여름철 미식 경험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티톤브로스, 러닝 프로그램 확대... 매출 ‘쑥쑥’

전년동기 대비 4월 70%·5월 30% ↑

LF가 전개하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티톤브로스가 러닝 커뮤니티 기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티톤브로스는 러닝 세션을 본격 운영한 이후 4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5월 매출은 30%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러닝 시장이 단순 운동을 넘어 취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체험형 프로그램이 고객 접점 확

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티톤브로스는 러닝 커뮤니티가 형성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카페 mtl과 협업해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한 카시나 도산 팝업스토어에서도 러너와 아웃도어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러닝 라인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6SS 스트라이더 컬렉션은 기존 티셔츠와 반바지 중심에서 경량바람막이 등 아우터까지 제품군을 넓혔으며, 도심과 트레일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러닝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 손상된 장 되살린다... 생명연, 장 오가노이드기술 기업이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개발 가속화 83억 규모... 특허 3건·노하우 포함 균질성·재현성·공급성 한계 개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석윤 원장, 손미영 박사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두번째부터)가 '인간 장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및 약물평가 플랫폼 원천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민간 기업에 이전되면서 손상된 장을 되살리는 토종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인 맞춤형 오가노이드 치료제 뿐 아니라,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형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3일 손미영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인간 장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및 약물평가 플랫폼 원천기술'을 총 83억원(선급금 및 마일스톤 등 포함) 규모로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전문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3차원 '작은 장기 모델'로, 실제 장기의 세포 구성과 기능 일부를 모사할 수 있어 질환 연구, 약물평가, 재생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된다.

이번 계약은 손미영 박사 연구팀이 2018년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성숙

장 오가노이드 제조기술을 개발한 이후 축적해 온 3건의 핵심 특허와 노하우를 포함한다. 연구팀은 개발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도록 ▲고성능 성숙 장 오가노이드 제조 기술 ▲생각 및 재생능력 강화 기술 ▲균일한 대량생산 배양 기술 등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완성해 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2년 손미영 박사팀의 장 오가노이드 성숙화 기술에 이어 2023년 생착, 재생능력이 강화된 기

능성 인간 장 상피 모델 기술을 이전받으며 오가노이드 기반 평가 솔루션(ODISE I-GUT)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번째 이전되는 이번 기술의 핵심은 인간 성체줄기세포가 아닌 전분화능줄기세포를 이용해 실제 사람 장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장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이를 재생치료제와 약물평가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생착성과 재생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함께 대량생산·동결보관 기술을 확보해 기존

오가노이드 기술의 한계로 꼽히던 균질성·재현성·공급성 문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성품(Off-the-shelf) 형태의 범용 세포치료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유래 장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 유래 장 줄기세포 및 기질세포를 활용한 차세대 동종(AIlogenic)·범용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자가유래 세포를 통해 맞춤형 치료제를 생산해야 하는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균질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춘 장 재생치료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물평가 플랫폼 분야에서도 iPSC 기반 장 오가노이드, 장 오가노이드 유래 줄기세포 및 기질세포를 활용해 약물 효능·독성 평가, 장 질환 모델링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기존 성체유래 장 오가노이드(ATORM-C) 플랫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iPSC 유래 오가노이드 기술을 추가 확보하여 생산 안정성, 확장성, 질환모델 및 첨단대체시험법(NA

Ms) 기반 평가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연은 실제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가노이드 GMP 제조·품질평가·비임상 실증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대형화 인공지능 기반 연구 개발을 확충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손미영 박사는 "이번 기술이전은 생명연이 축적해 온 인간 장 오가노이드 원천기술이 기업의 상용화 역량과 결합해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생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석윤 생명연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생명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오가노이드 원천기술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치료제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과"라며, "생명연은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 SK바사, 유니세프 독감백신 공급자 지정

남반구 국가 대상 물량 선적 개시 연내 약 64만 도즈 백신 순차 공급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제기구 공공조달 백신 입찰 수주에 성공하며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유니세프로부터 2026년 독감백신 공급자로 지정되어 남반구 국가 대상 물량 선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북반구 물량 공급도 시작해 연내 약 64만 도즈의 독감백신을 각국 가별 점포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 국가는 라오스, 미얀마, 피지 등 남반구 국가를 시작으로, 에티오피아, 레바논, 알바니아, 팔레스타인 등 북반구 지역으로 이어진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남반구 물량에 대해 유니세프의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 수출용 제품

단일 공급자로 선정돼 해당 시즌 전량을 공급하게 됐으며, 북반구 물량에 대해서도 주요 공급자로 선정돼 상당 규모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니세프 첫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범미보건기구(PAHO)에 이어 유니세프까지 공급처를 다변화하며 글로벌 양대 공공조달 시장을 포괄하는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감염병 취약 국가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조달 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 모델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SK바이오사이언스는 PAHO를 통한 독감백신 공급을 비롯해 국제백신연구소(IVI),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넓혀왔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유니세프 첫 수주는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한 단계 확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전 세계 감염병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령, 19개국 '탁소텔' 판권 확보 완료

글로벌 비즈니스 개시

보령이 지난해 사노피(Sanofi)와 체결한 탁소텔(Taxotere) 글로벌 비즈니스인수 계약을 종결하고, 탁소텔의 글로벌 판매를 공식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탁소텔 매출은 보령의 실적으로 직접 반영된다.

지난해 인수 계약을 통해 보령은 한국·중국·독일·스페인·남미·중동 지역을 포함한 19개 국가·지역에서 탁소텔의 판권·유통권·허가권·생산권·상표권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반을 확보했다. 최종 계약 규모는 최대 약 1억7000만 유로(약 2796억 원)이다.

보령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 체결 당시 기존 합의한 방식에 따라 국가별 재고 현황 등을 반영하여 거래대금을 조정해 최대 1억 7500만 유로에서 약 500만 유로가

감소한 금액으로 합의한 금액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탁소텔은 1995년 유럽 허가, 이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도세탁셀 성분의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로, 유방암·비소세포폐암·전립선암·위암·두경부암 등 7개 암종에 걸쳐 수술 전후 보조요법부터 전이성·진행성 암종의 1차 치료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면역항암제·표적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서 핵심 약제로 쓰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빅파마의 오리지널 항암제 사업 전체를 인수해 직접 글로벌 판매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령은 2020년 젤자(Gemzar), 2022년 알림타(Alimta) 국내 비즈니스를 인수해 사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탁소텔 매출 개시로 세포독성항암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본격 기동하게 됐다.

## 엑세스바이오, BA.3.2 변이 대응력 확인

진단 공백 없이 높은 유효성 유지

엑세스바이오는 자사의 기존 코로나19 항원진단제품(신속진단키트)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BA.3.2(사카다)'에 대해 우수한 진단 성능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엑세스바이오에 따르면 BA.3.2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사 제품의 민감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 오미크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엑세스바이오의 고민감도 코로나 항원 자사 진단키트(CareSuperb™ COVID-19 Antigen Home Test)는 뉴클레오패시드(Nucleocapsid)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실험에서 엑세스바이오 제품은 진단 공백 없이 높은 유효



성을 유지했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자사 진단 제품의 기술적 신뢰성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확인했다"며 "언제든 변이 바이러스로 사회, 경제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근당 '에소듀오에스' 크기 줄여 복용 편의성 ↑

종근당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에스'의 제형 크기를 축소한 '에소듀오미니(사진)'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에소듀오미니는 재발이 잦아 약물의 장기 복용이 필요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이 약을 삼킬 때 느끼는 물리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한 제품으로, 제형을 크게 축소하여 복용 편의성을 높인 약물이다.

이 제품은 에소듀오에스 20/700mg와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 받았으며, 에소듀오에스의 주성분인 에소오페트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을 절반으로 줄여 복용 용도를 높였다.

## "스테로이드 없이 여성형 탈모 개선"

LG생활건강, 연구 성과 발표

LG생활건강이 스테로이드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성형 탈모를 완화하고 모발이 자라기 좋은 두피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솔루션을 발표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발 연구 학술대회인 세계모발학회(WCHR)에서 여성형 탈모 관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에스트로겐 기반 호르몬 요법 역시 부작용 우려와 제한적인 적용 범위로 인해 치료 선택지가 많지 않는 점



이 과제에 꼽혀 왔다.

이번 연구에서 LG생활건강은 비타민 A 유래 비스테로이드 물질을 활용해 여성호르몬 수용체인 'ER α (Estrogen Receptor alpha)'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www.newsis.com

# 공감언론 뉴스시스

##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전국 경영주 소통 프로그램 진행**

세븐일레븐은 전국 경영주 소통 프로그램 '세븐 RE:START'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맹점과 본부 간 협력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일 수도권 1부문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회차별로 지역 경영주와 관리자급 임직원 등 약 60명이 참석하며, 운영본부장과 컴플라이언스부문장 등 주요 경영진도 함께한다. /세븐일레븐



**매일유업 셀렉스,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매일유업의 뉴트리션 전문 브랜드 '셀렉스'가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체력 증진과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매일유업은 대한체육회와 함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연간 1억 원 상당의 셀렉스 뉴트리션 제품을 지원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돕는다. /매일유업



**iM사회공헌재단, 지역 아동 합창단 5기 출범**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일 미래세대 아동의 문화예술 경험 확대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5기 iM어린이합창단'의 출범식을 가졌다. 대구서구가족센터 및 한국 클래식음악고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iM어린이합창단'은 지역 아동의 문화예술 경험 확대와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iM사회공헌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이다. 이번 5기 합창단에는 다문화 아동 15명, 비다문화 아동 15명 등 총 30명의 지역 아동이 참여한다. /iM금융그룹



**DB손보, 고객 참여 기부로 환아 치료비 지원**

DB손해보험이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만 18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치료비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고객 참여형 기부 이벤트'를 통해 마련됐다. 특히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공헌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DB손해보험

**인사**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새내금개발청 차장 남영우

# CJ웰케어가 이너비, 성수서 '먹는 PDRN' 체험 팝업

(세포 재생을 돕는 저분자 DNA 성분)

올리브영N서뷰티랩 선봬 벨리곰 에디션 경쟁력 강조 슬리밍·맞춤 추천 2030 공략

CJ웰케어가 이너뷰티 브랜드 이너비(InnerB)의 성분 설계 기술과 신제품 경쟁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팝업스토어를 열고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는 6월 한달간 올리브영N 성수에서 이너뷰티 브랜드 '이너비' 팝업스토어 '이너비 뷰티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인기 캐릭터 벨리곰이 연구원으로 등장하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방문객들은 이너비 제품에 적용된 과학적 성분 배합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 및 건강 고민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는 체험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특별 디자인을 적용한 벨리곰 에디션 6종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이너비 피디알엔 리즈'를 비롯



이너비 뷰티랩\_팝업스토어 전경.

/CJ제일제당

해 콜라겐-아쿠아-톤업 스틱 3종, 이너비 글로우 앰플, 이너비 슬리밍 쾌변젤리 등으로 구성됐다. 수분, 탄력, 생기 등 다양한 이너뷰티 니즈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력 신제품인 '이너비 피디알엔 리즈'는 파마리서치의 특허 기술 DOT™을 적용해 순도 90% PDRN(연어아리추출물) 150mg과 저분자 피쉬

콜라겐 1000mg, 히알루론산을 한 포에 담은 스틱 젤리 제품이다. 애플캐모마일 맛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으며, CJ웰케어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먹는 PDRN'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름 시즌을 겨냥한 슬리밍 라인업도 함께 소개한다. 이너비 슬리밍샷, 이너비 슬리밍 스타터, 이너비 슬리밍

쾌변젤리 등 체지방 관리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제품군을 전시해 토털 이너뷰티 브랜드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6월 9일에는 벨리곰이 직접 팝업스토어를 찾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너비 공식 SNS 계정 팔로우 시 경품을 증정하는 '100% 당첨 럭키 캡슐' 행사와 제품 샘플링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CJ웰케어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이너뷰티에 관심이 높은 2030 소비자들에게 이너비만의 차별화된 성분 설계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6월에 진행되는 올영피과 올영세일 프로모션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한유원, 동반성장몰서 '월드컵 축제'

식음료, 선봉기 등 프로모션 진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동반성장몰이 다가오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모아 '2026 월드컵 축제' 프로모션을 개최한다.

3일 한유원에 따르면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만이 입점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몰로 현재 3000여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20만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임직원은 개인별로 받은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동반성장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도 실현할 수 있다.

4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월드컵 축제' 기획전에는 응원하며 먹기 좋은 식음료 제품, 이른 더위를 날려줄 선봉기 등의 가전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참여한다. 행사기간 소비자를 위한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국제정과 연계해 운영되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도 동일한 혜택으로 누구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 맞춰 진행되는 기획전에 참여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가족, 친구와 더욱 뜻깊고 즐거운 응원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농협은행,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점포운영 고도화·홍보방안 논의 서울미래유산 인증 취득 지원

NH농협은행은 서울중앙사업부 박광원 본부장과 기업성장지원부 황의경 부장 및 임직원들이 전국 지역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소재 강서면옥을 찾아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시설 및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운영 고도화 방안을 비롯해, NH농협카드 플랫폼인 NHpay 'CATCH(할인쿠폰 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및 고객 유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점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확산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유산'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오른쪽부터) 박광원 NH농협은행 서울중앙사업부 본부장, 안재원 단장, 박주현 종로1가지점 지점장, 선우성 강서면옥 대표, 황의경 NH농협은행 기업성장지원부 부장이 컨설팅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NH농협은행

황의경 NH농협은행 기업성장지원부 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CU, 러닝 특화 편의점 제주로 확대

'러닝 스테이션' 전국화 시동

CU가 러닝 특화 편의점 '러닝 스테이션'을 제주까지 확대하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러닝 스테이션은 편의점을 단순 상품 판매 공간을 넘어 러닝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휴식 공간으로 확장한 특화 점포다. CU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한강 인근에 1호점을 선보인 이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19개 점포를 운영해왔다.

CU에 따르면 러닝 스테이션 점포의 최근 매출(4월 1일~5월 31일)은 전년 동기 대비 168.9% 증가했다. 생수 매출은 211.9%, 스포츠·이온음료는 195.0%, 에너지바는 188.1%, 단백질 음료는 179.8% 늘어나는 등 러닝 관련 상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CU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제주 해안도로 인근의 'CU 제주중동해안



CU가 업계 최초로 오픈한 러닝 특화 편의점인 '러닝 스테이션'을 한강을 넘어 제주까지 확대하며 전국 단위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한다. /bgr리테일

점'을 러닝 스테이션 콘셉트 점포로 새롭게 선보인다.

점포 1층은 일반 편의점으로 운영되며, 2층에는 탈의실과 파우더존, 러닝 특화 상품존, 휴식 공간 등을 갖춘 러닝 베이스캠프를 조성했다. 방문객들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현대차그룹, 한·프 문화교류 후원

수교 140주년 맞아 음악축제 지원 스타리아·수소버스 이동 편의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 음악 페스티벌'과 7월 4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아비뇽 일대에서 개최되는 '아비뇽 페스티벌'을 후원한다고 3일 밝혔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 음악 페스티벌은 서울과 파리, 보르도 등 한국과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클래식 음악 축제다. 올해 서울 행사에는 프랑스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와 프랑스 기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 아티스트들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현대차는 공식 모빌리티 후원사로서 페스티벌 기간 중 참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FCEV 등 이동차량 및 전용 쇼퍼서비스를 제공해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고객 대상 초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페스티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고교 선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대한민국 입시 지형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과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은 고등학교 선택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핵심은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다. 기존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1등급 구간이 1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내신 등급 자체만으로는 정밀하게 이뤄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학생이 어떤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교육과정 편성표'다.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업적 역량과 진로의 깊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 ◆ 고교 유형별 구조적 강점과 약점을 입체적으로 해부해야 길이 보인다

현재 고교 체제는 영재학교·과학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로 분류되며, 개편안에 따라 유희리의 지형도 역시 재편되고 있다. 먼저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상위권 내부의 무한 경쟁 부담이 완화되면서, '고급 수학'이나 '화학 실험' 같은 심화 전문 교과 이수 이력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독보적인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역시 학교가 보유한 풍부한 심화 과목 개설 역량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의 노후우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학들이 내신 변별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 학교의 강력한 수능 대비 환경은 큰 강점이 된다. 다만 우수 자원들과의 경쟁 속에서 1등급(10%) 이내에 진입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반면 일반고등학교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내신 확보의 용이성에 있다. 1등급 구간이 10%로 넓어짐에 따라, 일반고에서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는 전략은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지역균형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학교 역량에 따라 선택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기록 역량이 편차가 존재할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신 1등급을 확보하고도 대학이 요구하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고배를 마시는 리스크도 엄존한다. 결국 일반고 선택의 핵심은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안착시켰는지, 그리고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달려 있다.

### ◆ 아이의 메타인지와 성향이 배제된 고교 선택은 실패를 양산한다

많은 학부모가 범하는 오류는 '학교의 역량'을 '아이의 역량'과 동일시하는 착각이다. 아무리 교육과정이 훌륭한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그 환경을 소화해 낼 용기와 회복탄력성이 없다면 그 화려한 환경은 오히려 독이 된다. 고교 선택의 진정한 출발점은 자녀의 인지적 역량과 성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즉 메타인지에서 시작돼야 한다. 학습 동기가 내재적이고 압박감이 높은 환경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멘탈을 지닌 학생이라면 특목·자사고의 치열한 경쟁 환경이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반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의 학생이라면, 우수한 일반고에 진학해 안정적인 내신 고지를 선점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 시대의 고교 선택 전략은 '어느 학교가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가'라는 일차원적 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의 메타인지적 역량을 중심에 두고 변화된 제도의 유희리를 냉정하게 대입해 최적의 교육 트랙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이 혼돈의 입시 지형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고교선택이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 그 이름 찬란한 '다이닉스 신화'



기 지 수 첩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아성다이닉스'. 최근 유통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흥미로운 농담이다. 지난해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과 49%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반도체 거인 SK하이닉스에 다이닉스를 견주어 부르는 말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최근 다이닉스가 실적표로 증명해 낸 위상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성다이닉스의 지난해 매출은 4조 536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진짜 놀라운 건 수익성이다. 영업이익 4424억 원을 기록하며 이마트(별도기준 2771억 원), 롯데

마트(-70억 원) 등 전통의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들을 가볍게 제쳤다. 영업이익률은 9.8%에 달한다. 통상 1~3% 수준에서 치열하게 마진 싸움을 벌이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반도체급' 여닝 서프라이즈다.

사람들은 이 화려한 숫자를 보며 '다이닉스 신화'를 말하지만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지점은 겉으로 드러난 영업이익률이 아니다. 반도체 신화의 핵심이 미세 공정을 제어해 불량률을 낮추는 '수율(Yield)'에 있듯 다이닉스의 지속 가능한 신화 역시 다이닉스만의 '수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이닉스에게 수율이란 곧 '품질 관리'를 의미한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 100원을 남기는 바리다매 구조에서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이나 고객 이탈은 치명적이다. 첨단 반도체 웨이퍼에서 한 장의 불량도 허용하지 않

으려는 노력처럼 다이닉스의 매대에 올라오는 수만 가지 저가 제품들도 불량률 제로를 향해 끝없이 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소비자들이 다이닉스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고?'라는 경이로움 즉 압도적인 가성비 비에 지갑을 여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핑계로 품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이닉스'라는 찬사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

반도체 황금기를 이끈 힘이 기술 혁신이듯 유통 시장의 불황 속에서 다이닉스가 보여준 독주 체제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왕관을 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철저한 수율 관리로 고객의 신뢰와 사랑에 응답하는 것만이 '다이닉스 신화'를 일시적인 농담이 아닌 위대한 기록으로 남기는 유일한 길이다. /seoh@metroseo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4일 (음 4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세요. 60년생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72년생 주변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84년생 오늘 하루는 심신이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49년생 성과는 후에 골고루 돌아옵니다. 61년생 음악의 조화가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73년생 작은 선물로 사랑하는 감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85년생 연애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51년생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신중하세요. 63년생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75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7년생 성급한 판단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52년생 어려운일이 생기면 끈기있게 해결하세요. 64년생 주변의 일에 신경을 쓰면 화를 당합니다. 76년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8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로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53년생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5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소리대로 처신하세요. 77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89년생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54년생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66년생 시험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7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90년생 노력 없는 요행수를 비례서는 안 됩니다.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 보세요.



56년생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2년생 물가에 가려져서 조금만 미루세요.



57년생 주위에 신뢰를 차곡차곡 쌓을 때입니다. 69년생 일에 진척이 있겠습니다. 81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93년생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58년생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70년생 미련이 남아있으니 재력에 손실이 많습니다. 82년생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다. 94년생 현명한 지혜와 건강한 육신이 자랑스럽습니다.



59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71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파트너를 잘 알아보아 주세요. 95년생 진로문제도 잠시 갈등이 있겠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만천과해, 큰 그림

사람은 확증편향이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익숙한 것에는 의심을 덜 품는다. 이런 심리를 활용한 전략이 중국 병법 36계의 하나인 만천과해(滿天過海)다.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넌다는 뜻의 이 말은 당나라 태종 때 생겨났다. 당 태종이 바다 건너기를 두려워하자, 신하가 배 위에 집을 지어 왕과 술잔을 나누는 사이 배를 움직여 바다를 건넌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큰 그림을 완성하는 전략이다. 명리학의 눈으로 만천과해 전략을 해석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과 운세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의 시너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기의 성정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사주에 담겨있는 대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만천과해 전략은 현대 사회의 직장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하면서 요란하게 떠돌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최선의 안행은 평범함이다.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안행으로 어떤 변화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직장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발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다. 운세를 바꾸어 보려고 갖은 애를 쓸때 평소보다 무리해서 갖은 시도를 하다가 되려 더 큰 손실을 본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시기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야 한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안으로는 꼭 필요한 실력을 탄탄하게 쌓는 것이다. 쌓은 실력이 새로운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와 어울리면 강한 폭발력을 발휘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0

스도쿠 3651

스도쿠 365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2	1		4	
			8	7	3			
1	4		3					
2	5				4			
4	6					3	1	
		3					2	5
				4			9	7
		1	2	6				
5	4	8	2					6

6			9	2	1		4	
			8	7	3			
1	4		3					
2	5				4			
4	6					3	1	
		3					2	5
				4			9	7
		1	2	6				
5	4	8	2					6

9	1	2	8	3	7	6	5
6	7	8	9	2	1	2	8
2	6	7	8	1	9	2	8
9	2	9	1	7	6	8	8
1	8	2	8	2	9	6	9
8	8	7	6	1	9	2	9
8	2	6	9	9	8	7	1
2	9	8	2	8	7	9	1
7	9	1	2	6	2	8	8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재수생·반수생 몰린 6월 모평... “객관적 위치 확인 기회”

졸업생 응시자 비율 19.8%  
수능 1등급 65.7%가 N수생  
‘사탐런’ 가속에 점수 예측 안갯속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졸업생 접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3 재학생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N수생과 경쟁하는 시험이 될 전망이다.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8만8343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9만1412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9만6931명이다. 졸업생 접수자는 지난해보다 7044명 늘었으며 전체 지원자 중 비율도 19.8%로 높아졌다.

이번 모의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졸업생 유입이다. 2011학년도 이후 평가원이 공개한 6월 모의평가 통계 기준으로 졸업생 접수자 수와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제 상위권 경쟁에서 졸업생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평균 1등급대 수험생 가운데 졸업생 비율은 65.7%에 달했다. 2등급대에서도 졸업생 비율은 57.7%로 과반을 넘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6월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처음으로 동일한 시험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특히 올해는 졸업생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재학생들은 교육청 학력평가 성적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나란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본수능에서는 N수생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본수능 졸업생 접수자 차이를 근거로 약 9만2000명의 반수생이 추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도 대학 1학기 기말고사 이후 반수생이 본격 가세하면서 본수능에서는 9만~10만명 수준의 반수생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사회탐구 선택 비율은 66.2%로 2025학년도 51.2%, 2026학년도 59.0%에 이어 2년 만에 15%포인트(p) 이상 늘었다.

김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재수생과 반수생 증가에 탐구 선택 인원 변화까지

겹치면서 올해 수능 난도를 맞추기 가장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며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발표 이후 사탐 전환을 고민하는 과탐 수험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탐 전환이 모든 과목의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2년 연속 정시 합격예측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탐에서 사탐으로 전환한 수험생의 80.7%는 탐구 백분위가 5점 이상 상승했다. 반면 국어와 수학 성적 향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 결과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며 “성적을 확인한 뒤에는 최대한 빠르게 일상적인 학습 흐름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능 공부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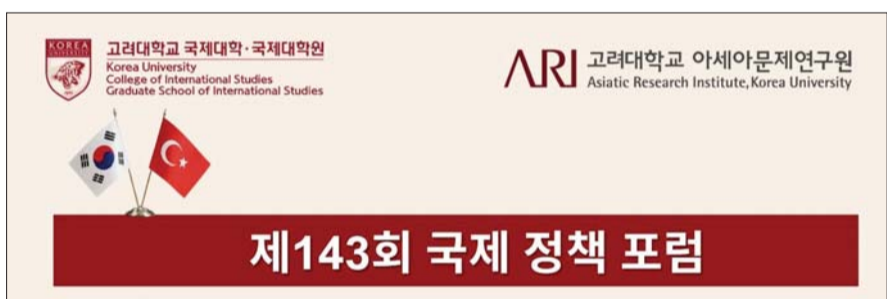
lhj@metroseoul.co.kr



metro

## 튀르키예 외교장관, 고려대서 특별강연

고려대, 국제정책포럼 오늘 개최  
‘튀르키예 외교전략’ 관련 특강



고려대 국제 정책 포럼 이미지.

튀르키예 외교를 총괄하는 하칸 피단(Hakan Fidan) 외교부 장관이 고려대학교를 찾아 글로벌 정세 변화 속 튀르키예의 역할과 한-튀르키예 협력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

고려대학교는 국제대학원 국제정책포럼(이사장 김병기)이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이진한), 주한 튀르키예대사관과 공동으로 4일 오후 3시4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국제관 214호에서 제143회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997년 출범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국제정책포럼은 올해로 143회를 맞은 국제정세·외교 분야 학술 정책 플랫폼이다. 국내외 전·현직 고위 관료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언론계 및 민사사회 인사 등을 초청해 국제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튀르키예 외교 수장인 하칸 피단 장관이 연사로 참석해 ‘글로벌 맥락에서의 튀르키예의 부상과 한국에의 시사점(Rise of Turkey in the Glob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Korea)’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중동과 유럽,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튀르키예의 외교 전략과 국제적 위상 변화, 한국과 튀르키예 간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다뤄진다.

행사는 김병기 국제정책포럼 이사장 겸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진한 아세아문제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하칸 피단 장관의 특별 강연과 질의응답, 기념촬영이 예정돼 있다.

특별 강연 사회는 김병기 교수가 맡는다. 김 교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아시아 최고 안보회의인 아시안 시큐리티 서밋(Asian Security Summit)의 창립 한국 대표로 활동하며 한국 장관급 인사들의 참여를 이끈 바 있다.

/이현진 기자

## 가정 밖 청소년에 연 300만원 장학금

서울시, 장학사업 확대 개편

가정폭력과 학대,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처음으로 전용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장학사업을 확대 개편해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올해 첫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검정고시 준비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모집과 5월 심사를 거쳐 총 112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가정 밖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면,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와 분리돼 생활하는 주거·보호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1인당 연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은 2회에 걸쳐 지원되며 1차는 지난달 지급됐고, 2차는 성장보고서 제출 이후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초 역량 강화 교육과 경제교육을 제공해 학업 지원뿐 아니라 자립 준비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등 총 19개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생활하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취업·정신건강 지원까지 연계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안성시, ‘별이야 페스티벌’ 내일 개최

스타필드 안성 안팎 프로그램 마련

안성시가 지역 전통문화와 미래 농축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두 개의 사업을 잇달아 추진한다.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청년 축산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과정도 운영돼 지역 활력 제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안성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스타필드 안성에서 ‘2026 안성문화장x스타필드 안성 별이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3대 장터로 꼽혔던 안성장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예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구성한 지역 대표 문화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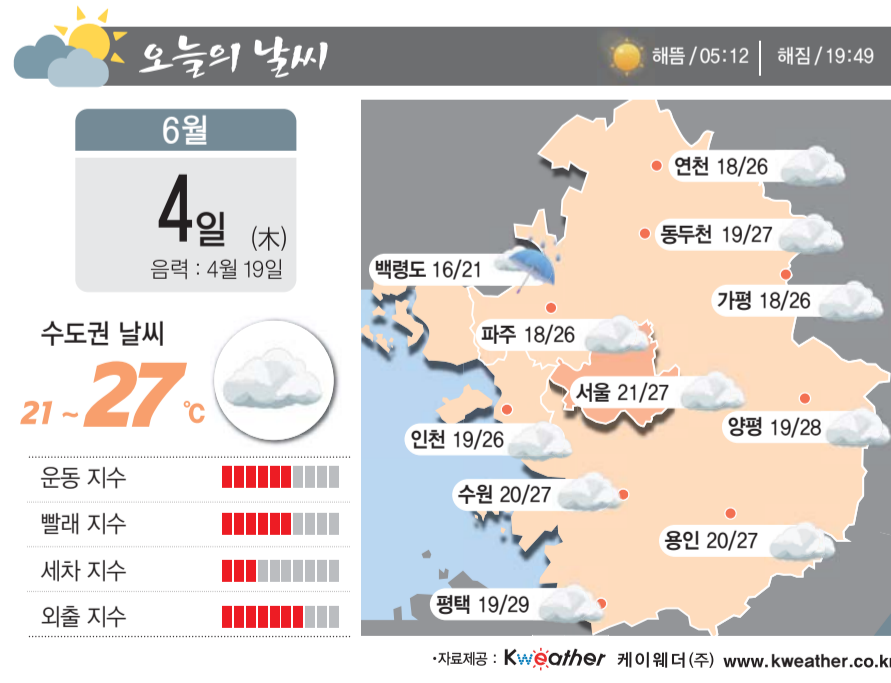
축제 기간에는 스타필드 안성 안팎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화장인들의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와 체험 부스를 비롯해 문화상단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지역 농축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야시장 형태의 푸드트럭존도 조성된다. 시민과 가족 단

위 방문객을 위한 공연과 문화체험 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안성시는 이번 축제가 지역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 장터의 의미를 현대적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오는 12일까지 ‘안성 청년 축산리더 ALL 300’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메트로 한줄뉴스



▲美법무, 트럼프 지지층 보상 논란 ‘반무기화기금’ 공식 철회  
▲美 “중비민감 품목 의견 받아”...미중 무역위 의견 수렴 /사진 뉴스시스

▲中, 日·필리핀 해양 경계 협상에 연일 비난... “중국 권익 침해”  
▲日 올해 방위백서 초안 “中, 실전능력 향상 기도...종합적 국력으로 대응”

▲中왕이, 英외무에 “폐쇄는 후퇴뿐...중기업 차별 말아야”  
▲이란혁명수비대 “美 5함대 기지 공격”...美 “이란 공격 실패”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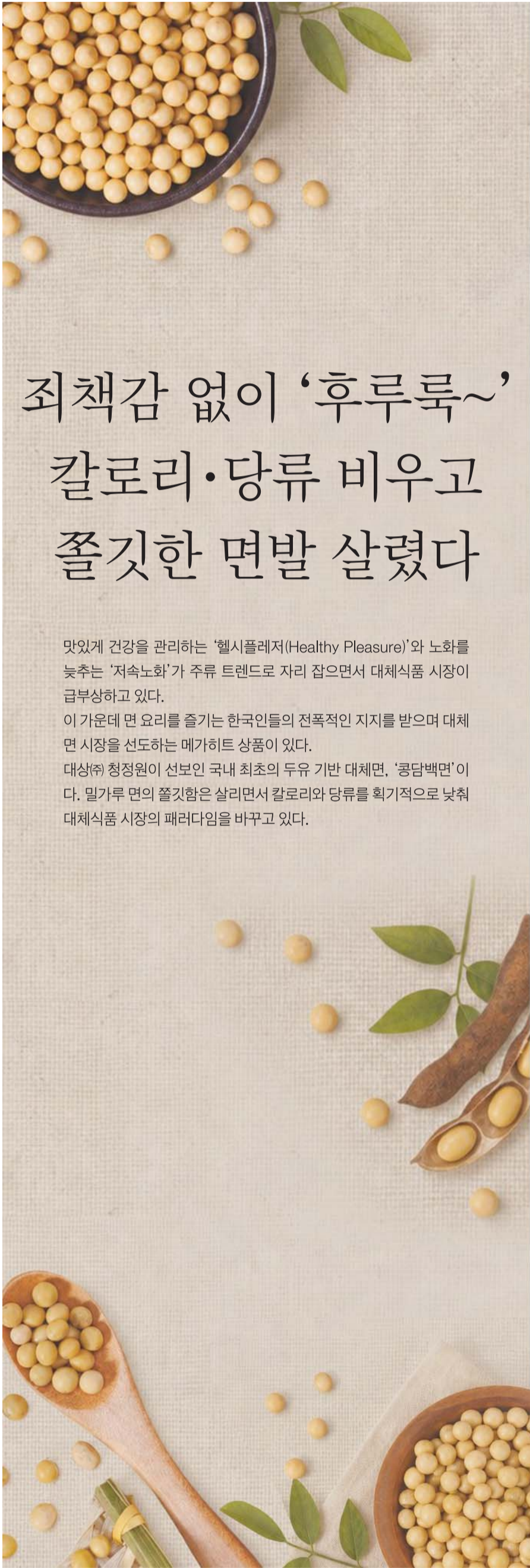


홈플러스  
희생계획안  
인가 불투명  
L1



Life

장 오가노이드 기술  
기업 이전  
재생치료제 속도  
L2



# 죄책감 없이 ‘후루룩~’ 칼로리·당류 비우고 졸깃한 면발 살렸다

맛있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와 노화를 늦추는 ‘저속노화’가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대체식품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면 요리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체면 시장을 선도하는 메가히트 상품이 있다. 대상(주) 청정원이 선보인 국내 최초의 두유 기반 대체면, ‘콩담백면’이다. 밀가루 면의 졸깃함은 살리면서 칼로리와 당류를 획기적으로 낮춰 대체식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청정원 ‘콩담백면’

◆국내 첫 ‘두유면’ 등장, 시장 판도 바뀌  
청정원 콩담백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출시됐다. 당시 기존 시장에 존재하던 두부면들은 두부를 압착해 만드는 방식 때문에 거칠고 딱딱 끊어지는 식감이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청정원은 두유 반죽을 미세 노즐에 통과시키는 독자적인 ‘압출 공법’을 적용, 일반 밀가루 면처럼 탱글하고 졸깃한 식감을 완벽히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맛과 식감, 편의성을 모두 잡은 콩담백면은 가공두부면 타입 시장에서 2021년 약 5%의 점유율로 시작해, 불과 2년 만인 2023년 1분기 기준 31%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이후 경쟁사들의 유사 제품 출시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한 두유면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했다.

### ◆‘당뇨협회’ 인정 칼로리·당류제로

2023년 대상은 가볍고 건강하게 즐기는 콩담백면이라는 슬로건 아래 맛과 패키지를 전면 개선하는 대대적인 제품 리뉴얼을 단행했다. 리뉴얼된 콩담백면 사리 한 봉지(150g)의 스펙은 파격적이다. 열량은 단 30kcal(일반 소면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당류 0%(ZERO), 글루텐 프리(Gluten-Free)를 실현했다. 여기에 엄격한 글로벌 KETO 인증(1인분 탄수화물 함량 9g 미만)까지 획득했다.

탄수화물과 당류 부담을 최소화한 덕분에 다이어터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 환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대상은 한국당뇨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콩담백면을 공식 후원하며 전문 기관의 강력한 신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요리 활용도가 높은 ‘면 사리’ 제품을 단독 출시하고 패키지 뒷면에 QR 레시피를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 ◆매출 급성장… 생산 능력 라인업 확대

내실을 다진 콩담백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9% 성장했으며, 론칭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60%에 달한다. 특히 자신만의 웰빙 레시피를 즐기는 트렌드와 맛물려 ‘사리면’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콩담백면’ 전체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을 사리면이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탄탄한 소비층을 형성하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7월에는 ‘황금 클로렐라’로 기존 사리면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콩담백면 골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황금 클로렐라’ 함량을 기존 사리면 대비 약 6배 높여 더

헬시플레저·저속노화 식품 트렌드에 밀가루면 대신 두유기반 대체면 선택  
두유면 시장 ‘퍼스트 무버’로 자리잡아

뚝뚝 끊기지 않는 졸깃한 식감 구현  
열량 단 30 칼로리… 소면의 ‘10분의 1’  
다이어터·당뇨환자 식단으로 큰 호응  
사리면·간편식 등 총 8종 라인업 갖춰



청정원 황금 클로렐라로 더 건강한 ‘콩담백면 골드’



청정원 콩담백면.

/청정원

욱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면발을 구현했으며, 식이섬유 함량 또한 100kcal 기준 13.3g으로 식약처 고식이섬유 제품 표시 기준까지 충족한다.

이에 대상은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 라인을 확충해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렸고, 제조 기술력 개선으로 소비기한도 2배 연장하며 유통 경쟁력을 확보했다.

현재 콩담백면은 비빔국수, 동치미국수, 매콤짜장면 등 자체 천연 대체당 ‘알룰로스’를 사용해 칼로리를 낮춘 간편식 6종을 포함해 총 8종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김지현 대상 신선식품팀장은 “청정원 ‘콩담백면’은 건강과 편의성을 모두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대체제를 넘어 최고의 식사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보적인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니즈에 맞춘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대체면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수화물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죄책감 없이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청정원 콩담백면의 메가히트 신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전설’ 펠레 1958년 월드컵 결승 유니폼, 경매에 나온다 /사진 뉴시스  
▲‘메시·호날두 6회 출전’…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팀 최종명단 확정

▲‘손흥민 7번·오현규 18번’…홍명보호, 월드컵 등번호 발표  
▲LA올림픽 준비하는 김은중 감독 “축구 본선 출전권 따낼 것”

▲LG, 결국 치리노스와 결별…새 외국인 투수로 우완 리오스 영입  
▲‘감다살’ 브랜드까지 등판…패션업계, 야구장 물린 MZ 여성팬 잡는다

SK telecom

2026



# 오래 쓰길 잘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1984

1984년부터 10년, 20년,  
그리고 40여년에 이르기까지  
고객님과 함께한 오랜 시간 뒤에  
SK텔레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오래 쓰길 잘했다”

그 어떤 혁신적 비전보다  
어느 최첨단 기술보다  
고객님께 들려올 이 말 한마디가  
저희가 향해야 할 답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을 내어 주신 오랜 시간이  
장기고객님께 기분 좋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한마디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다시 고객이라는 출발점에서

SK텔레콤 CEO

정재현

### T 장기고객 프로그램

데이터 혜택 제공 · 공연/전시 할인 · 단독 이벤트 초청 · T 멤버십 VIP 승급  
\* 혜택별 대상·조건·기간·제공 방식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T 멤버십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0년 이상 장기고객님들을 위한 스페셜 케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케어 · 장기고객 전문 상담 케어

국가고객만족도  
이동전화서비스 부문  
29년 연속 1위

